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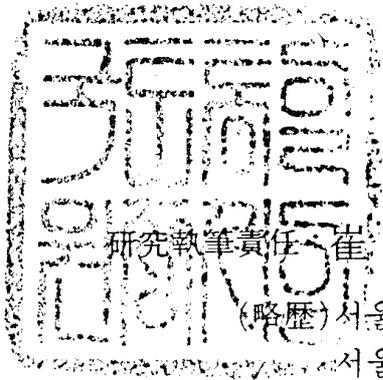
3920.
233.53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現實政治体制로서의 共產主義 諸類型比較研究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s of Communism
as Actual Political Systems

2010.11.21
2010.11.21
이정호
홍 " "
이정호



研究執筆責任 崔 榮

(略歷) 서울大 文理大 政治学科 卒業

서울大 大学院 政治学 博士

現 國防大学院 教授

高大垂細亞問題研究所 研究員

高大·外國語大 大学院 講師

韓國國際政治学会 常任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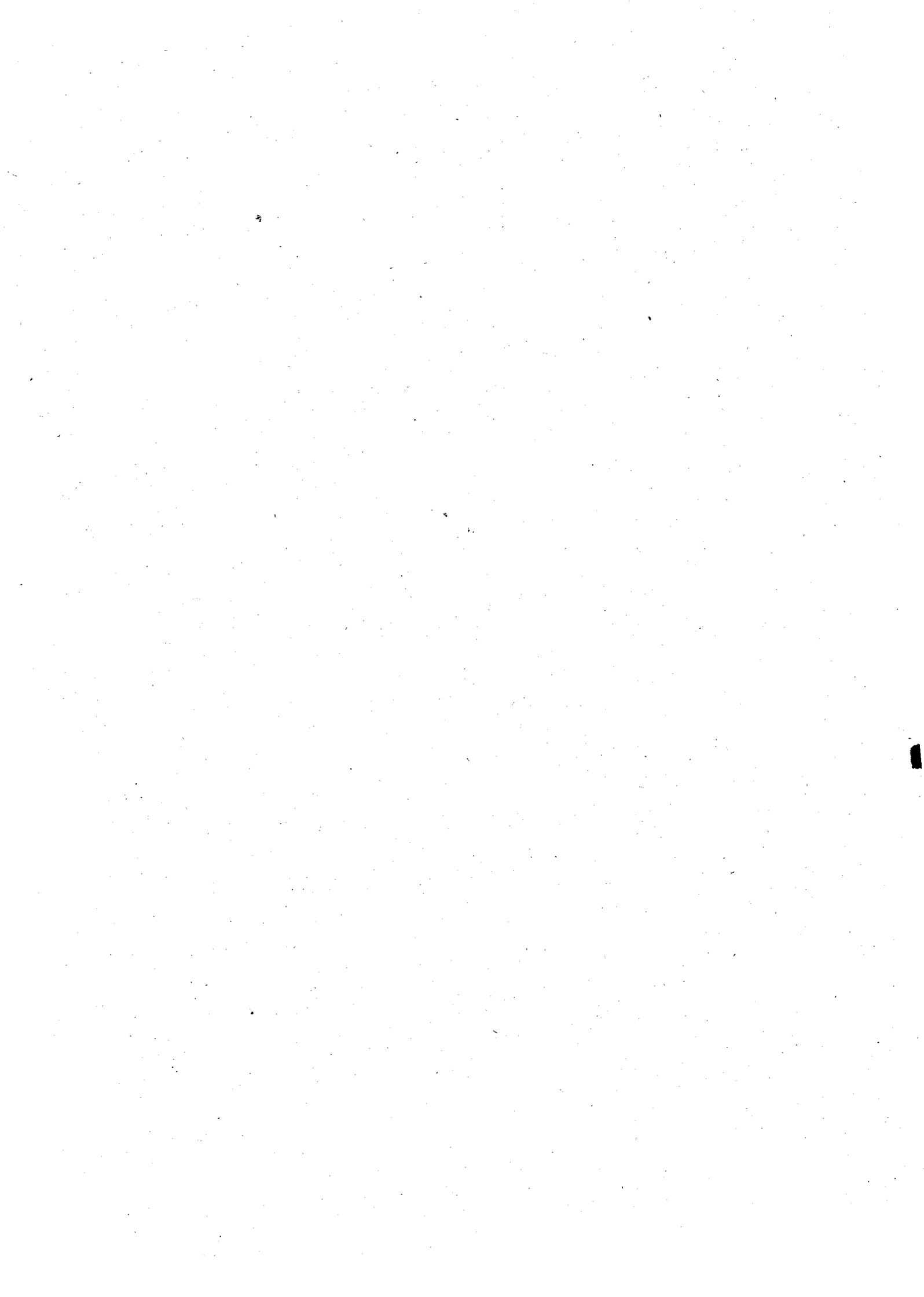
刊行責任: 金 德 重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目 次

1. 序 論.....	3
2. 蘇聯類型의 形成過程.....	5
3. 蘇聯類型의 特徵.....	8
가. 農業과 勞動.....	8
나. 中央集權制와 官僚制.....	13
4. 中共革命의 特殊性.....	16
5. 中共類型의 特徵 — 大衆路線.....	20
6. 아시아共產主義의 特徵.....	26
가.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發展論의 理論과 實際.....	26
나. 「運動」의 概念과 體制內的 保守化의 葛藤.....	32
7.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下的 中共 認識論.....	35
8. 結 論.....	54
<註>.....	58
<Summary>.....	67



1. 序 論

本 研究은, 지금 現在의 華·鄧領導體制下的 中共이 이른바「中共類型 프로퍼」를 어느 만큼 維持할 수 있는지, 따라서 基本的인 「大衆路線」을 어느 程度까지 간직할 수 있는지를 檢出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4 個의 現代化追求」에 全力投球하고 있는 現實政治體制로서의 基本性格을 부각시키는 데에, 그 「레종·데들」을 두었다.

그러므로 研究의 상당한 部分이 中共類型分析으로 「카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蘇聯類型的 考察은, 이러한 中共類型과의 差異點을 立證하기 위한 前提項目의 구실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本 研究의 目的은 아시아地域의 政權担當共產主義者들이 中共「패턴」을 受容하고 있는 程度와 이른바 接木問題인 土着化的 「칼러」를 규명하는데 두어 질 것이다.

이러한 論理的 脈絡에서 볼 때 分析의 「차례」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선 「蘇聯類型的 形成過程」을 간략히 살펴 본 다음, 〈農業과 勞動〉, 〈中央集權制와 官僚制〉라는 「앵글」에서 「蘇聯類型的 特徵」을 叙述해 보고자 한다.

다음 大衆路線에 입각한 「中共類型的 特徵」을 考察하기에 앞서 「中共革命의 特殊性」을 檢討해 볼 것이다.

이리하여 이 「中共類型」에 底礎한 아시아共產主義는 어떠한 特徵을 가지고 있는가를 分析하기 위해,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發展論의 理論과

實際」, 「〈運動〉의 概念과 體制內的 保守化의 葛藤」이라는 項目에 焦點을 맞추어 概括化해 보고자 한다.

역시 本 論文의 「라이트·모티브」는 「第7章: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下的 中共認識論」이 될 것이다. 이 章에서 筆者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整理해 보고자 努力할 것이다. 워낙 中共政權이 복잡하므로 無理가 갈지 모를 일이다.

아름든 이러한 中共認識論이 그런대로 論理的, 妥當性면에서 提起될 수 있다면, 이 「프레임워크」속에서, 예컨대 「黨主席華國鋒」의 帽子를 쓴 「鄧小平政策集團」의 存在價値는 歷史的意義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蘇聯類型의 形成過程

蘇聯型 社會主義는 우선 1917年의 10月革命부터 國內戰이 終了하는 1920年의 初葉까지는 특히 戰時共產主義時代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 1) 이 時期에는 극단적인 行政的=權力的 方法으로 問題解決을 試圖코자 했다. 특히 食糧問題에 있어서는 地域에 따라 機關銃을 장치해 놓고 農民으로 부터 食糧을 奪取하는 일까지 자행되었다. 이러한 結果로서, 그 령지 않아도, 볼셰비키黨이 거의 발판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農村과, 權力과의 關係는 戰時共產主義時期에는 대단히 悲劇적인 狀況이 되어, 이것이 「크론슈타트의 反亂」²⁾ 등 形態로 政權 그 자체의 基礎를 뒤 흔드는 要因도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渦中에서 레닌은 이 解決에는 農民層에 대한 一定한 양보 밖 에 없다고 判斷하였는데, 1921年 봄의 이른바 「네프」(NEP = 新經濟 政策)에로의 移行은, 이러한 事情을 背景으로 하여 수행되었던 것이다.

레닌은 黨内の 完강한 反對意見을 물리치고 네프路線을 채택한 責任者 이지만, 그 뒤 收拾을 하지 않은채, 1924年 1월 死亡했다. 레닌은 「이젠 네프는 끝났다」고 發言한 일이 있는데, 全體적으로는 社會主義는 네 프下에서는 退却중이라고 그는 現狀認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終了케 하는가 하는 문 제가 과제로서 남겨졌던 것이다. 이 경우 「왜」 네프를 그만 두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點에서는, 볼셰비키黨 指導者들의 認識은 一致하고 있었다.

원래 레닌自身, 이 네프에로의 退却은 社會主義의 第1段階에 到達하기 위한, 特別한 過渡的 現象이라고 想定하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想定한 바와 같은 社會主義의 第1段階마저, 아직 먼곳에 있었기 때문에, 레닌은 이 時期의 것을 混合經濟 이룬바 「多우클라드論」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當時의 러시아에는 家父長的인 農民經濟, 小商品生産, 私經營의 資本主義, 國家資本主義 그리고 社會主義라고 하는 여러가지 「우클라드」(Uklad = 制度)가 併存·混在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프期는, 이 前3者에 대해서 양보하면서, 社會主義的인 要素를 차츰 強化해 간다는 志向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意味로 볼때, 어디에서인가 네프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3)

다만 여기서 한가지 問題가 제기된다. 이 多우클라드論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內容이 아무래도 大工業으로 되어 있다는 點이다. 즉 社會主義的인 「生産關係」 「사람과 사람의 關係」라고 하는 意味로 社會主義가 반드시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大工業」과 等置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레닌은 文化的으로 대단히 落後한 러시아의 狀況을 본 때문인지 부르조아의인 組織, 부르조아의인 統計라던가 計算을 수반하고 있어도 大工業은 그것만으로 훌륭하게 社會主義的 要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중에 스탈린에 제승된 「工業化 即 社會主義」라는 「셰에마」(Schema = 圖式) 4)은 이미 레닌에게서 태동된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이것은 여하튼 간에 레닌後의 時代に 들어 오면, 우선 1923년경 부

터 左派의 사람들이 네프를 빨리 포기하라고 主張하기 시작했다. 그 代表的인 論者는 「블레오브라젠스키」⁵⁾ 등인데, 이 者들이 나중에 트로츠키主義者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主流派의 스탈린, 부하아린 등은, 네프繼續論을 主張했다. 즉 당분간 個別的인 私的 農業經營 (Khozyaistbo) 을 중히 여겨 그 生産力提高를 期待해야 한다는 要旨의 主張을 하고 있다. 하기야 左派쪽도 이 論争의 段階에서는, 集團化로 옮길 경우, 「徐徐히」 수행할 것을 대단히 강조하여, 說得이라는 方法도 重視하고 있는 點에서, 대단히 온건한 수행方式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過程에서 「누가」 하느냐 하는 問題는 党内鬪争의 結果, 대충 20年代 中葉에는 스탈린으로 落着되었다. 다만 「언제」라는 時期의 觀點에서는, 穀物調達문제가 契機가 되면서, 27, 8年度가 轉換期로 되었다. 最近에도 그러하지만 볼셰비키의 指導者가, 穀物の 集荷때문에, 各地로 善導하러 나가고 있다. 특히 28年의 初葉에는 스탈린은 우랄=시베리아 方面으로 갔다. 이 우랄=시베리아方面에서는, 若干의 行政的 方法(이른바 「우랄·시베리아方式」)이 사용되어 상당한 成功을 거두었는데,⁶⁾ 그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強制的·全面的 集團化」로 역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하기 시작했다. 그 後 여러가지 動搖는 있었으나 차츰 全面的 集團化라고 하는 路線이 推進되어 나갔던 것이다.

3. 蘇聯類型의 特徵

가. 農業과 勞動

이리하여, 形成된 蘇聯型社會主義는 사실상, 「스탈린型」社會主義라고 말할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內容으로 어떠한 問題를 內包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分析해 보기로 한다.

우선 農業에 관해서는, 集團化 그것도 行政權力에 의한 強制的·全面的 集團化라는 點이 열거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의 段階에서는, 小農民이 러시아革命時 만큼한 規模로, 그것도 이러한 形態로 社會主義의 出發에 관련을 갖는 다는 것은 計算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西歐의 革命을 主體로 하여 思考했기 때문에, 또 帝國主義段階를 모르고 自由主義段階의 兩極分解傾向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社會主義의 두가지 「모멘트」 즉 組織性 및 主體性·連帶性과 關聯시켜서 말한다면, 그 중의 主體性·連帶性이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연 無視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敵對性을 갖고 있는 農民과의 關係를 處理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行政的·權力的이라는 點에 대해서는 當時부터 戰略共產主義의 誤謬를 한번 더 저지르는 것이라는 批判이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것을 強行하여 集團化를 추진해 나갔다. 원래 農業의 大規模機械化=集團農場이라고 하는 構想은, 마르크스·엔겔스의 이미지에도 있었던 것이다. 다만 거기서 移行하는 方法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훨씬 超越했다고 할까, 方向이 바뀌어 졌다고 할까, 아뭏든 현저하게 相異한 事態가 되었

다. 그 까닭은 內發的인 契機라 할까, 農民의 「퍼셉션」(Perception= 認知)이 蘇聯의 경우에는 커다란 限界를 갖고 있었다는 事實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點은 中共과는 對照的인데, 다만 이른바 「暴風雨와 같은 集團化」의 表現에서 부각되듯이, 스탈린 自身의 豫想마저 훨씬 초과하여 集團化가 急「템포」로 추진되었다는 點에서는, 中共의 경우도 같은데 合作社化의 「템포」는 毛澤東의 豫想을 초과하여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農民의 自發性에 의한 것인지, 行政의 이른바 지나침인지, 이런 次元에 무언가 類似性과 差異性이 있는 것으로 思料되는 바이다.

아름은, 이리하여 大規模機械化=集團農場⁷⁾이라는 方向으로 移行하고자 했는데, 當時는 龐大한 數의 小農民層이 있었으며, 그것도 단순한 小農民이 아니라, 革命으로 겨우 자기들의 土地를 入手했다는 意識을 가진 小農民이었던 만큼, 그 抵抗은 대단히 컸었다. 이리하여 결국은 이들과의 妥協의 產物로서, 個人副業이 허용되는 形態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에서는 大規模機械化 集團農場의 形態로 完全히 農業을 處理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結果的으로는 農業의 2重構造를 남겨 놓은 셈이 되었는데, 이것이 現代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勞動問題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蘇聯은 大工業에 대해서 대단히 큰 期待를 갖고 있었다. 事實, 當時는 國際干涉戰爭을 겨우 물리쳤기 때문에 언제 다시 侵犯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憂慮가 있었다. 따라서 軍事的인 必要에서도 急速히 重工業化를 수행하는 것이 至上課題가 되었다. 그리고 社會主義는 發達한 重化學工業의 生産力에 입각해서

만이 構築된다고 하는 생각도 強烈했다.

여기서 主要工業品の 生産高를 나타내는 <圖表 1>에 따라 그 內容을 알아 보기로 하자.

<圖表 1> 蘇聯의 主要工業品 生産高

	1913 年	1928 年	1932 年	1940 年
電 力(10億kwh)	(8) 2.0<49>	(4) 5.0<31>	(13) 13.5 <67>	(26) 48.3<121>
石 油(100萬t)	(27) 10.3	(9) 11.6	(20) 21.4	(17) 31.1
石 炭(")	29.2	35.5	64.4	165.9
銑 鐵(")	(15) 4.2<44>	(9) 3.3<49>	(70) 6.2<170>	(35) 14.9<179>
鐵 鋼(")	(15) 4.3<63>	(8) 4.3<49>	(43) 5.9<111>	(29) 18.3<139>
시멘트(")	(13) 1.8<69>	(6) 1.8<42>	(26) 3.5<81>	(25) 5.7 <77>

出處：蘇聯國民 經濟統計(1970年版).

()內는 對美國比, < >內는 對英國比, %

年數로는 1913年 즉 第 1次世界大戰前夜와 네프가 거의 끝나고 第 1次 5個年計劃이 시작되는 1928年, 第 1次 5個年計劃이 終了하는 1932年 및 第 2次大戰當初의 1940年을 잡고 있다. 대충 說明해 보면, 工業生産力은 1928년에는, 거의 革命前의 生産力水準으로 回復하고 있다. 네프期에 여기까지 回復한 셈이다. 그리고 1928年~1932년에 걸쳐서는

約 2倍가 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成長이다. 그리고 1940年에 있어서도 이 成長傾向은 계속되어 全體로서 工業化의 進展은 정말 눈부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國際的인 比較라는 觀點에서 보면, 對美國比에서는, 1940年의 段階에서 電力이 26%, 石油가 17%, 銑鐵이 35%, 鐵鋼이 29%, 시멘트가 25%정도이니 그렇게 대단한 水準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對英國比를 보면, 1940年 段階에서 벌써 美國을 가볍게 凌駕하고 있기 때문에 一流의 工業國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圖表 2>는, 이른바 生産手段 生産部門과 消費對象生産部門의 比率를 나타낸 것이다.

<圖表 2> 生産手段生産部門(A)와
消費對象生産部門(B)의 比率(%)

	全 體	A	B
1913 年	100	35.1	64.9
17	100	38.1	61.9
28	100	39.5	60.5
40	100	61.2	38.8
45	100	74.9	25.1
50	100	68.8	31.2

出處: 蘇聯國民經濟統計(1970年版)

이 <圖表 2>에 의하면 第 1次世界大戰前 혹은 네프終了時에도 6割이상이 消費對象部門 이었던 것이 第 1次 5個年計劃間에는 逆轉하고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1940年이 되면, 이미 6對 4로 되어 있다. 多少 「디스카운트」해서 생각해도, 이른바 重工業化가 대단한 勢로 推進된 것은 認定된 것이다.

이러한 結果로서, <圖表 3>에서 이른바 階級構成을 보아도 커다란 變化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13年의 段階에는 아직 폐 있었던 古典的인 支配階級은 完全히 抹殺하고, 팔호즈農民과 勞動者·職員으로 구성된 社會가 形成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36年~37年 무렵 바로 스탈린憲法이 制定된 무렵에는 「스탈린型」 社會主義體制가 堅固해졌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圖表 3> 蘇聯의 住民階級構成(%)

	1913 年	1928 年	1939 年	1959 年
勞動者·職員(팔호안은 勞動者)	17.0(14.0)	17.6(12.0)	50.2(32.5)	68.3(48.2)
팔 호 즈 農 民	-	2.9	47.2	31.4
個 人 農	66.7	74.9	2.6	0.3
부르조아·地主·大商人·쿨라크	16.3	4.6	-	-
全 住 民	100	100	100	100

出處: 蘇聯國民經濟統計 (1970年版)

나. 中央集權制와 官僚制

이러한 重工業化의 急進展은 客觀적으로 보아 대단히 커다란 成果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수행한 方式은 이른바 上意下達式인 철저한 中央集權的·指令的인 計劃經濟方式 이었다. 이것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볼셰비키黨의 性質하고도 관련되고 있었다.

이 中央集權的·指令的 計劃經濟方式은 社會主義가 多元化해 가는 過程에서 여러가지로 批判을 받는 方式이나 그 自體로서 생각했을 경우에는 특히 「基準」을 討議에 붙였을 때 提起되는 組織性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正統的인 主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資本主義的인 「아나아키」의 完全한 否定으로서 中央計劃當局이 자세하게 下部의 生産單位에 指令하는, 그리고 그 生産單位는 中央指令대로 生産을 해 가는 것으로, 이것이 잘 되어 가면 能率的인 것이며, 思考方式 자체로서는 잘못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原理적으로는 오히려 극히 自然的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따라서 企業의 位置설정도 당연히 中央計劃當局이 生産指令을 내고, 그 指令을 忠實히 實行하는 단순한 單位(즈베노오. Zveno = 環, 班 또는 組)라는 스타일이 될 것이며, 그 自體가 主體性을 가진 組織이 아니라, 위로 부터의 指令을 忠實히 수행하는 사슬의 一環비슷한 것이 된다. 企業의 設立·解散 혹은 人事權은 全部 「上部機關」이 決定한다. 이것은 「社會主義國營生産 企業規定」에 明文化되어 있다.

그리고 資材補給면에서 볼 때, 機械와 原材料는 中央의 計劃當局이 全部 現物的으로 指示하여, 이른바 一種의 配給制度를 제정하고 있는 셈이

다. 또한 消費財의 價格設定도 最終的으로는 上部機關이 決定하는 것이
지, 企業「레벨」에는 決定權限이 없다.

이러한 計劃經濟方式이기 때문에 勞動者의 主體性·連帶性은 內發的 契
機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勞動者統制라고 하는 工場委員會
運動이 抑壓되어 버렸다는 歴史的 過程이 있었기 때문이다. 工場委員會
運動등을 전개하여 勞動者의 自主管理를 追求하고 싶어도 부르쥬아的인 能
力마저 勞動者階級이 아직 保有하고 있지 못하는 狀況에서 도저히 不可
能하므로 레닌 스스로가 10月革命 이후 이것을 否定해 버렸다.

러시아에서는 資本家的인 大工業이 수행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充分한
것이며 이것마저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認識이 그 밑바닥에 있었
던 것이다. 그 중에서 이른바 物質的 刺戟을 中心으로 한 一種의 官
療的인 시스템이 勞動의 世界에 있어서도 전개케 되는데, 이것이 「蘇聯
型」社會主義의 한 特徵이라고 命名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黨과 軍에 대해서 일별해 보기로 하자.

원래 社會主義라고 하는 것은, 「理念」이 重要的 役割을 담당하는 社
會 즉 어떠한 社會를 志向하여 積極的으로 全體를 인도해 가느냐 라는
意味에서의, 이른바 指導理念이 重要的 意味를 갖는 社會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 「理念」을 둘러싼 思想的 葛藤의 場이 「黨」인 것이다.

그러나 蘇聯에서는 黨자체가 실제에 있어서 官療化되어 간다는 問題를 갖
고 있다. 이 點을 좀 더 具體的으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25年의 第14次黨大會에서 예컨대 카아메네프가 처음으로 公公然히 스
탈린批判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본래 書記局은 단순한 事務

遂行機關이었다. 즉 政治局이 基本的인 政治方針을 결정하고 그 밑에 書記局이 있어야 하는데, 스탈린은 書記局을 사실상 政治局의 위에 앉히기 위하여 갖은 努力을 다했다. 이러한 스탈린의 努力은 이미 黨이 「理念」的인 相克의 場이라기 보다 人間의 數, 勢力과 같은 것에 의해 일이 결정되어 버리는 官僚的인 機構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代辯하는 것이다.

특히 前述한 바와 같이 대단한 勢로 工業化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技術人力을 大量으로 教育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러한 「教育」 및 其他 여러가지의 社會生活에 關여하는 人材를 財政的으로 뒷받침하는 構造가 이미 現出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 自體가 官僚制를 作出하는 素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여기서 提起되는 問題가 黨内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8) 또한 軍도 初期의 赤軍의 아직 平等主義的인 豫則에서 官僚的인, 文字 그대로의 히에라르히組織으로 스탈린時期에는 變貌해 버렸다. 勳章과 格差가 큰 給料體系가 그러한 例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한 마디로 말해서, 「職種階層構造」라고 호칭할 수 있는 構造가 蘇聯의 여러가지 部面에 展開케 되는데, 이러한 全體를 가리켜, 「스탈린型」 社會主義 혹은 「蘇聯型」 社會主義라고 命名할 수 있다. 9)

4. 中共革命의 特殊性

中共革命은 보통 社會主義革命이라고는 불리어 지지 않고,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던가 新民主主義革命으로 불리어 지고 있는데, 아뭏든 그것은 1920年代의 後半으로 부터 最近의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까지 대단히 長久한 期間 約 半世紀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大小를 다 포함하면 항상 革命運動이 계속된 셈이 된다. 이 중에서 특히 큰 것이 新民主主義革命, 社會主義革命,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이라고 하는 세 가지 革命이라고 볼 수 있다.

아뭏든 中共革命은 그러한 3大革命을 포함하고 있는데, 中共의 特殊性이 유별나게 分명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것은 新民主主義革命의 段階가 必然적으로 存在한다고 하는 主張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新民主主義革命論을 要約해 볼 必要가 있다¹⁰⁾ 우선 新民主主義革命이라는 것은 毛澤東에 의하면, 社會主義革命 즉 世界프롤레타리아 革命의 一形態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表現하면 그것은 資本主義로 부터 社會主義에로의 轉化를 意味하는 社會主義革命의, 러시아革命과는 相異한 一形態라고 規定하고 있다.

둘째로 그 內容으로 볼 때, 말할 나위도 없이 土地革命을 主要한 形態로 하는 民主主義革命과 官僚獨占資本主義 즉 國民黨이 支配하고 있었던 工業, 商業, 銀行과 같은 大資本의 國有化라고 하는 社會主義革命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이 경우, 단순한 民主主義革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大資本의 國有化라는 點에서 社會主義的 要素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또 하나는 新民主主義革命的 革命過程의 이른바 特殊性인데, 이미 1928년경 부터 井崗山の 鬪爭이 시작되고, 最初의 江西소비에트를 中心으로 한 解放區가 1930年 前後에, 상당히 廣大한 地域에 걸쳐서 創出되었다.

그 以後 多少의 迂餘曲折은 있었으나, 抗日戰爭, 第3次國內革命戰爭을 거쳐 이것이 全國으로 擴大한 셈이 되었다. 그 때 까지의 약 20年間은 한 쪽에 있어서는 國民黨支配의 地域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共產黨을 中心으로 한 解放區가 있는 式的 同時 並存的인 形態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 解放區政權은 그 自身 이미 社會主義的인 要素를 포함한 社會主義建設의 原型 (Urtypus) 이라고 할만한 것은 그 자체 내에 形成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端的으로 말해서 延安時代의 整風運動과 生産運動이 그 後의 社會主義建設의 原型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中共革命的 特殊性을 초래한 要因은 말할 나위도 없이, 舊中國이 半殖民地·半封建社會 였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社會主義的 段階論이라는 把握方式이 있는데, 이것은 中國과 其他 當時의 殖民地·半殖民地社會라고 하는 것을, 段階論的으로 如前히 把握하느냐 하는 것을 指稱한다.

또한 中國등의 殖民地·半殖民地社會를 對象으로 할 경우에는, 段階論的 把握 이외에, 또 하나 類型的인 把握을 하지 않으면은, 段階論的 把握으로까지 진전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까지 마르크스經濟學의 帝國主義論에서는, 겨우 支配의 客體로서 殖民地·半殖民地가 거론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點은 重要하다. 여기서 中國半殖民地·半封建社會論

을 우선 類型論으로 提示할 必要가 있다.

資本主義의 類型差 즉 先進國型과 後進國型의 差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研究가 되어 있으나, 이러한 差는, 各己의 資本主義의 形成過程에 있어서의 原始的 蓄積의 存在方式의 差異도 서로 나타나고 있다.

植民地·半植民地 경우에는, 原始的 蓄積의 한 要素인 資本의 集積은 현저하게 貧弱하며, 이 속에서 舊來의 手工業者, 農民의 一方的 沒落이 進行함에 따라 이들이 프롤레타리아로서 吸收되는 것이 어려워 진다는 特徵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이러한 人口는, 農村에 堆積하여, 土地의 私的·地主的 獨占下에서 收奪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植民地에 特有한 過剩人口를 形成하는데, 이러한 過剩人口의 存在는, 여기서는 오히려 社會的 生産力의 發展의 死重이 된다. 아니 이러한 表現보다는 龐大한 過剩人口를 收奪·浪費하여 生産을 維持해 가고 있기 때문에 生産力發展의 動因이 存在하지 않는 다고 하는 편이 妥當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過剩人口를 가령 絶對的 過剩人口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러한 絶對的 過剩人口의 形成이야 말로, 植民地化過程의 經濟的 內容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植民地의 階級構造는 全人口에서 차지하는 農村人口의 壓倒的 比重과 그 内部에 있어서의 地主·小作關係를 基軸으로 한 地主·小作貧農의 對抗, 貧農을 中核으로 한 貧困層의 大量의 存在라는 形態가 된다. 여기서는 後進資本主義國家와 같이 小農體制마저 形成하지 않고, 말하자면 貧農體制가 支配的이 되어 이것이 問題의 中心으로 되는 셈이다.

이러한 內實을 가진 植民地·半封建社會는 물론 帝國主義諸國家에 從屬

하는 生産樣式이며, 自立的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편의상, 이러한 樣式을 植民地·半封建制라고 類型化하여 規定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물론 이 植民地·半封建제도 世界資本主義를 構成하는 一類型이기 때문에 世界資本主義의 發展段階에 따라서 段階적으로 變化·發展하는데, 이것이 自立的인 樣式이 아닌것 만큼 여기에 있어서의 矛盾의 展開로 資本主義의 경우하고는 자연히 相異한 形式을 취할 수 밖에 없다. 端的으로 말해서 여기서는 生産力의 停滯에 基因한 貧困의 堆積이 中心問題가 되며, 그 中核的인 部分이 貧農問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中共革命 내지 中共社會主義建設의 特殊性도, 이러한 植民地的 類型을 基礎로 해서 理解하여야 할 것이다.

5. 中共類型的 特徵 — 大衆路線

「蘇聯型」社會主義가 히에라르히的 官僚主義라는 特徵을 갖는데 대해서 中共의 경우는 大衆路線 (Ch ün - Chung Lu - hsien) 혹은 이것과 결부된 平等主義가 特徵으로 指摘된다. 그렇다면 大衆路線은 如前히 形成되었는가. 우선 그 形成의 歷史부터 탐구한다면, 中共革命이 人民戰爭形態로 遂行되었다는 것이 重視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人民戰爭形態의 展開는, 그 基底에 半植民地·半封建的인 分散經濟가 있어서 이것에 運으로 規定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는 生産手段의 社會的 組織性에 依據할 수가 없어, 사람에 依存하는 路線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는 點이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延安時代로 부터의 整風運動의 歷史가 있다. ¹¹⁾ 이 중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과의 關聯에서 특히 重要한 것은, 1948年에 있어서의 第2次整風運動이다. 延安時代의 第1次整風運動이 아직 党内에만 局限된 것에 대해서, 이 48年の 段階에서는 이미 農村의 「레벨」 뿐이지만 權力을 장악했다는 狀況이 있고, 이 狀況에 입각해서 전개된 整風運動인 것 만큼, 第1次整風運動하고는 水準이 달랐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黨員과 마을의 幹部를 党外의 大衆이 審査·批判한다고 하는 運動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이 以後부터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까지 우선 1951년부터 3년에 걸친 「3反5反運動」¹²⁾이 전개되었다. 이어서 1956~57年の 「百花齊放」·反友派鬪爭 그리고 60年代前半의 「4清運動」¹³⁾이 전개되었고 이

운동들이 결국 文革(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文革後에도 여러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요컨대 항상 이러한 大衆運動을 展開하고 있다는 데에 特徵이 있다. 이것에 의해서, 官僚的·集權的으로 되고자 하는 權力關係를 大衆「레벨」로 「침·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大衆路線은 대체로 가장 中央集權的·統一的인 機構이어야 할 軍, 党, 國家에서도 看做 된다.

우선 軍을 볼 때, 「蘇聯型」의 軍하고는 상당히 다른, 階級이 없는 軍이 中共軍인 것이다. 즉 戰鬪員, 指揮員, 上級管理員과 같은 職能의 區別은 있으나, 階級은 없다. 하기야 第1次 5個年計劃의 時期에는, 彭德懷를 中心으로 하여 추진된 軍의 現代化路線이 채택되어 한때 階級制가 採択된 적도 있다.¹⁴⁾ 그러나 文革에서 다시 原狀回復이 되었다.

또한 軍의 3大任務에서도 示唆되듯이 軍은 戰鬪隊일 뿐만 아니라 生産隊, 工作隊인 것이다. 中共軍은 지금 이 時點에서도 駐屯하고 있는 地域에서 여러가지 生産과 大衆工作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党인데 中國共產党은 社會主義建設事業을 수행하는 核心的인 「힘」이라는 관점에서 核心党이라고 불리어 지고는 있으나 前衛(avant garde)라는 思考方式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레닌的 前衛党하고는 아주 다른 紐앙스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黨員의 水準에서 볼 것 같으면, 黨員이라던가 幹部라고 하는 것은 延安時代에 確立된 셈인데, 整風運動, 生産運動과 關聯하여 生産勞動을 하고 生産을 組織한다고 하는 傳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政治·行政의 官僚는 아닌 것이다.

또한 國家組織에서는 물론 中央集權體制가 확고하게 수립·執行되고 있

는 것은 엄연한 事實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나친 權限集中의 마이너스面에 대한 意識도 強하다. 그래서 可能的 限, 地方레벨, 下位레벨에 權力을 分散·이양코자 하는 努力도 대단히 緊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大衆路綫을 「論理構造」와 「現實態」로 나누어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가. 論理構造

中國共産党的 3大作風은 이러하다.

- ① 理論과 實踐의 結合
- ② 大衆과의 密接한 聯關
- ③ 批判과 自我批判

이 3大作風의 두번째 項目에 거론되고 있는 大衆路綫이라는 概念은 실은 2重의 論理構造를 갖고 있다. 즉 手段 方法으로서의 「前人民服務」 이것은 궁극적으로 「革命을 위한 幹部」의 創出을 整地作業하기 위한 手段으로 등장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이 「新幹部政策」은 大衆路綫과 表裏一體關係에 있는 「2位1體性」을 갖는다. 다음은 그 자체가 實體라는 意味에서의 目的論이다. 文化革命的 初期에 毛澤東이 自認한 焦燥感, 즉 「運動¹⁵⁾은 冷却되고 있다. 이것은 나에게서는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表現이 目的論으로서의 大衆路綫의 관철을 뜻하고 있는 「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생각컨대 이 大衆路綫은 中國에 있어서의 長期間에 걸친 具體的인 歷

史的 經驗의 産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大衆路線은 農村社會 中國의 後進性에 그 論理的 基點을 갖고 있다.

毛澤東은 農民大衆의 革命主體性을 이렇게 強調하고 있다. 「中國革命의 成功에 10點을 준다면, 都市民과 軍隊는 3點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7點은 農民大衆에게 돌아가야 한다.」¹⁶⁾ 이 後進된 中國農業社會의 壓倒的 人口를 차지하는 農民大衆을 宣傳·教育·武裝化하여 이른바 遊擊戰을 戰略的 高地로 發展시킨 「人民戰爭」 방식에 호소하여 奪權을 쟁취한 毛澤東路線은 그 단적인 표현을 「魚水關係」와 「씨앗과 大地關係」에서 표출시키면서 中國이 안고 있는 「아시아的 政治後進性」을 교묘히 이용, 理論體系化 하였다는 점에서 이 概念圖式 (Conceptual schema) 이 印支半島의 「정굴」에서 適用 試圖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나. 現 實 態

이 大衆路線의 現實態 — 「運動」으로서의 現狀을 분석하는데 있어, 中共天地에서 진전되었던 「批林·批孔運動의 結合的 展開」¹⁷⁾가 답변해 줄 수 있다.

이 「運動」은 수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平板的인 權力鬭爭—邊倒는 아니었으며 적어도 上述한 大衆路線의 論理構造와 매치시켜 볼때, 思想概念으로서 「文闘로서의 第2의 文化革命의 계속적인 추구」, 그것도 党中央部에서 콘트롤하는 운동인 것이며, 그것의 具體的 現實態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新幹部」 양성과 그 양성을 정지작업하기 위한 中國共產黨傳來의 「大衆工作」이라는, 교육효과적 캠페인의 성격을 지

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효과적 측면에서 「上部構造領域의 革命」이라는 大衆路線을 위한 캠페인이 계속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9億人口의 뇌 세포 하나 하나를 다루고자 하는 「射程距離가 긴 運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간부층에 대해서는 毛澤東路線에 의한 「길들여진 使徒」¹⁸⁾를 계속 創出하는 基本志向性を 堅持, 「老·壯·靑 3結合」을 밀고 나가는 밀거름으로, 이 大衆路線 관철을 위한 캠페인인 「批林·批孔運動의 結合的 展開」를 이용해 나가고자 했다는 데에, 中國共產黨傳來의 運動 — 그 運動의 手段과 目的 — 에 대한 概念設定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인민대중에 대해서는 階級路線과 大衆路線¹⁹⁾의 동시적 철저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내외적 차원에서의 修正主義 침투를 방지키 위한 이른바 毛澤東의 思想이 아니라 「毛澤東思想」²⁰⁾의 관철을 다 하기 위해, 「中共式 교육학원리의 活學活用」으로, 바로 이 「批林·批孔運動의 결합적 전개」를 채용해 나가고자 했다는 데에, 大衆路線을 견지코자 志向하는 現實態의 眞面目이 表출되었다.

그런데 대내외적 차원에서의 修正主義 침투를 방지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中共은 그 「웨이트」를 「蘇聯修正主義社會帝國主義」가 야기하는 「外在的 要因의 內在化現象」에 두고자 한다.

林彪事件의 反面教師가 이것을 立證해 주거니와, 이러한 毛澤東路線의 基本的 姿勢에서 오늘날 中共을 原型으로 하는 아시아型 共產主義와 蘇聯 스타일의 共產主義와의 本질적인 차이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大衆路線의 論理構造와 現實態를 中共의 경우를 例로 들어 分析해 보았는데, 현재 政權을 잡고 있는 共產主義者들의 集團地域, 예컨대 北韓社會의 경우 이른바 「群衆路線」이라는 「캐치 플레이즈」는 기본적으로 이 「大衆路線」의 模倣·改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中國共產黨의 次元에서는 傳統的인 3大作風의 人民大衆의 受容이 있었던 것에 반해, 北韓 勞動黨의 경우 大衆路線의 北韓版 群衆路線은 단적으로 말해서 오랜 세월이 걸친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을 체험치 못했다는 점에서, 「콘포오미즘」의 機械化가 대변하는, 「權力志向性」이 강하다는 것을 검출해 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 共產主義는 中共의 亞流圈에 속할 수 밖에 없으면서도 자체의 政治文化에 中共 스타일을 接木시키는 이른바 「土着化 問題」를 안고 있고, 또한 그 亞流가 「創造적인 變種」으로 전환할 수 있는 「歷史의 固有한 山脈」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大衆路線의 메카니즘化가 示顯되는 「아포리아」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

6. 아시아 共產主義의 特徵

가.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發展論의 理論과 實際

아시아 共產主義는 一般的 유럽式 概念인 「近代化理論」의 批判에서 그 特徵의 「原點」을 부각시키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大衆路線의 具體的인 政策的 表現으로서의 「變形된 아시아적 近代化 發展論」의 理論과 實際를 거론하는 「레중·데틀」이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農村과 都市에서 全一的 支配를 확립하는 社會主義生産關係」를 형성코자 하는데에 소비에트형을 포함한 廣義의 유럽 共產主義와의 差異點이 나타난다. 아시아 共產主義는 既存의 農村을 據點으로 하여 農村의 工業化를 추진하고 農村을 새로운 形態의 生産地域의 據點으로 하여 발전시켜 나가코자 하는 大前提하에서, 비로소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工業化의 여러가지 문제를 「세팅」코자 하는데, 이러한 「地域의 不均等發展의 解消志向性」은 毛澤東戰略思想의 등뼈인 「農村에서 都市를 包圍」하는 實踐理論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知悉할 수 있다. 즉 農民志向의 大衆路線의 구체적 經濟發展理論과 實踐過程에서 表出되는 아시아型 共產主義의 圖式은 「近代化=工業化=都市化」라는 유럽式 「타이플로지」, 따라서 이 「타이플로지」의 班點을 그대로 癒着시키고 있는 유럽型 共產主義, 그리고 이 「타이플로지」에 점차 陷入하고 있는 소비에트型 共產主義의 圖式과는 基本的으로 相異한 內容을 갖는다.

그리고 이 「近代化理論의 批判」, 즉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 發展論」을 상술한 「地域의 不均等發展의 解消志向性」이라는 대전제에 입각

하여 「工業化問題」를 다루어 보면, 아시아共產主義의 特徵이 구체적으로 檢出되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도 中共과 北韓의 類似性, 엄격히 말해서 中共에서 오랫동안 試圖해 온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 發展論」의 論理를 北韓땅에 導入·展開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模倣·改作이라는 의미에서, 이 類似性은 分析될 수 있다.

「工業化 問題」에 있어서의 두 가지 「패턴」 즉 蘇聯共產主義가 「리베르만理論」 導入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라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유럽型 共產主義에서 추구코자 하는 政策과, 中共을 하나의 原型으로 하는 아시아地域의 政權担當共產主義者들이 추진코자 하는 政策간에는 <圖表 4>에서 보여지듯이, 政策的 争點의 「웨이트」設定에 있어 差異가 露呈되고 있다.

<圖表 4> 政策的 争點의 「웨이트」設定

- | |
|--|
| <p>① 「테크노크라트」管理 대 勞働者管理</p> <p>② 技術導入 대 技術의 自己開發</p> <p>③ 工業化「템포」에 있어서의 漸進主義 대 躍進主義</p> <p>④ 技術第 1主義 대 政治第 1主義</p> <p>⑤ 技術者養成에 있어서의 「正規教育」為主政策 대 「正規教育+業餘教育」並進政策</p> |
|--|

Source : CHOI, Yung,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Thought of Mao Tse-tung and Chuch'e Thought," East Asian Review, Vol. 2, No.1 (Spring, 1975), p. 14.

상술한 <圖表 4>에서 前者가 유럽型的 斑點에 점차 陷入하고 있는 蘇聯類型이며 後者가 基本的인 中共類型「프로퍼」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시아共產主義의 源流는, 이 中共類型「프로퍼」에서 연유되고 있는 것이다. 21)

이 다섯가지를 훑어 볼 때, 유럽型(여기서는 물론 소비에트 스타일이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어 있음) 共產主義 경우는, 工業社會에 있어서의 既存의 價値體系를 前提하고 있는데 反해서, 아시아型共產主義의 경우 이 既存價値體系자체를 根本적으로 變革코자 하는 姿勢를 觀察할 수 있다. 물론 이 다섯가지 對比가 數字公式 마냥 그대로 똑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有機的인 聯關을 가질 수 밖에 없지만 단지 그 重點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프라이오리티」 爲主로 對比表를 만들어 본 것이다.

中共의 경우 勞働者管理는, 「兩參一改三結合」과 「三同」이 말해 주고 있다. 「兩參一改三結合」制度란 이렇하다. 「勞働者가 企業管理에 管理者가 勞働에 參加하여(兩參)·管理制度를 改革하여(一改), 管理者·技術者·勞働者가 結合하여(三結合), 生産과 管理의 問題를 解決하여 가는 制度」를 말한다. 22) 「三同」이란, 管理者·技術者가 現場에 들어 가서, 勞働者와 같은 宿所에서 살고, 같은 칼로리의 飲食을 먹고, 같은 勞働에 從事하는 것을 말함이다. 23)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中共의 「패턴」을 模倣하여, 이른바 「3差解消」 24)를 통하여, 소위 「知識人의 勞働化·勤勞者의 知識化」를 촉진하여 자기나름 대로의 勞働者管理를 추진해 나가고자 광분하고 있다. 25)

따라서 언필칭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추진하고 있는 「大安의 事業體系」²⁶⁾와 「靑山里方式」²⁷⁾은 中共의 「大慶油田方式」²⁸⁾ 「大寨人民公社方式」²⁹⁾의 模倣·改作이라고 볼 수 있다.

技術의 自己開發問題에 있어, 中共이 1958年의 大躍進時期 이후 오늘날까지 수시로 자랑하고 있는 技術水準의 「躍進」報告³⁰⁾ 등이 指稱될 수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도 이러한 中共의 「자랑」을 모방하여 계속 技術의 自己開發에 있어서의 成功談, 예컨대 第5次黨大會의 金日成報告에서 보여지는 5,000톤級의 大型漁船을 自力으로 建造했다고 誇大宣傳에 熱을 올리고 있다.³¹⁾ 이것은 궁극적으로 「自力更生」(Self - Reliance)³²⁾이라는 論理에서 表出되는 것인데, 이 點에 있어서도 北韓共產主義者는 中共의 大衆路線을 模倣·改作하고 있다.

工業化「템포」에 있어서의 躍進主義는 아시아的 後進社會, 즉 「飢餓의 構造」³³⁾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意味內容을 갖는 이들 地域에서 슬로우건으로 設定될 수 밖에 없다. 中共이나 北韓共產主義者들을 비롯하여 아시아地域의 政權擔當共產主義者들은, 소위 「意慾的」인 5個年計劃, 6個年計劃에서 항용「노르마」(割當된 作業基準量) 초과달성과 기간단축운동등을 부르짖고 있다.

네번째 項目인 「政治第1主義」야 말로 아시아型共產主義의 중요한 特徵이다. 中共의 官營通信인 新華社나 3大紙誌(人民日報, 解放軍報, 紅旗)를 끊임없이 덮고 있는 이 「政治의 充滿」은 결국 勞動生産性的의 급격한 提高와 技術水準의 躍進的 向上을 政治思想工作의 果實인 意志力으로 초치코자 하는 努力의 表示이다. 예컨대 「思想面, 政治面에서의 路線이 을

바르나 아니나 하는 것이 모든 것을 決定한다.」³⁴⁾ 「革命에 힘을 경주하여 生産을 촉진하고 일을 촉구하여 戰爭에 대한 對備를 催促」³⁵⁾ 하는 이 一聯의 口號들을 金日成은 모방하여 이렇게 展開하고 있다. 즉 「思想革命은 技術革命을 훌륭하게 이행하여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신속히 촉진하는 데에 그 중요한 目的이 있다」고.³⁶⁾

하지만 오늘날 中共이나 北韓共產主義集團은 말할 나위 없이 아시아地域의 政權担當共產主義者들은 이른바 「思想的 要塞」가 「物質的 要塞」를 보장해 준다는 「폐제」의 現實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先進資本主義國家, 특히 日本에서 「플랜트」導入에 따르는 技術의 輸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놓여 있다.³⁷⁾ 단적으로 말해서 「노르마」達成은 냉정한 經濟數値.

이 目標達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또한 相乘論理的으로 「革命에 힘을 경주하여 ……」,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은……………」하고 云云하는 슬로우건들이 더 熱氣를 떨 수 밖에 없다.

이 「아킬레스의 踵」을 감싸기 위해서 아시아地域의 共產主義者들은 다섯번째 項目에서 거론되는 特殊教育體制등을 고안, 발전시켜 正規教育體制와 並行시켜 技術水準의 提高와 勞動生産性 向上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問題는 이러한 「아오타르케이아産業體系」가 本質적으로 「穩步前進的 經濟政策」을 孕胎한다는 二律背反性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周恩來디자인」³⁸⁾이라는 現實主義政策을 구현하는 次元에서의 總參謀長格인 鄧小平副總理가 中國共產黨政治局의 委員「리스트」에 오르기 훨씬 前에 計劃·執行한 이 「穩步前進的 經濟政策」은 마치 「第2의 經濟調整期 政策」을 박분케 하는 이른바 合理的인 漸進主義政策인데, 이 것

은 基本志向性인 工業化「템포」에 있어서의 躍進主義와 상충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技術水準의 急激한 提高와 勞動生産性的 向上은 결국 「政治第1主義」나, 「正規教育+業餘教育」 並進政策一邊倒만으로는 완전히 「카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周恩來, 鄧小平, 李鍾玉, 崔載羽 같은 P因子 (Pragmatic Factor = 現實主義政策因子)의 登場을 政略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P因子에 숨겨져 潛入할 우려가 있는 合理主義 즉 修正主義의 씨앗을 芟除하기 위해서는, 계속 思想革命과 文化革命을 絶叫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 問題는 아시아型 共產主義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곤란한 難題중의 難題. 이리하여 毛澤東路線은 자기네의 歷史的 遺産의 特徵을 保存·發展시키면서 「現實的 拘束性」을 受容할 수 있는 「그릇」을 찾기 시작했다. 이것이 党10期1中全會의 權力構造에서 보여지는 이른바 새로운 「스타일」의 幹部政策이며, 이런 幹部政策을 「政治路線이 決定된 다음에는 역시 중요한 것이 幹部問題」³⁹⁾라는 「캐치·플레이즈」로 大單位的으로 선전하여 두 가지 因子 즉 R因子 (Revolutionary Factor = 革命志向性因子)와 P인자에 有機적으로 癒着抱擁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革命志向性因子+現實主義政策因자의 有機的인 癒着關係」 概念圖式⁴⁰⁾은 대체로 中共型을 모델로 삼고 있는 아시아地域의 政權擔當 共產主義集團들의 權力構造와 幹部政策 및 政治行態와 外交·經濟·國際政策 등에 관한 分析을 試圖하는데 重要的 「타이플로지」를 提供해 줄 수 있다.

나. 「運動」의 概念과 體制內的 保守化的 葛藤

술한 用語가 등장되는 가운데 아시아共産主義의 여러가지 特徵이 벗겨져 가고 있다. 언필칭 「農民的 志向性」을 지닌 「大衆路線」이 底流을 形成하면서 新幹部政策과 新農業·위주적 「아오타르케이야」産業開發體系라는 아시아的 後進性的 물줄기는 河口로 수 많은 「試圖物」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共産主義의 國家的 발상지 蘇聯의 패턴에 抵抗하고 있다.

그런데 大衆路線이라는 底流가 中國大陸의 固有한 山脈에서 모여 든 物방울로 이루어 졌다는 歷史的 事實에 눈길을 모아 볼 때 表皮적으로 中共「스타일」을 뒤 따르고 있는 아시아地域의 政權担當 共産主義集團들이 내 건 「캐치 플레이즈」들이 「體溫에 密着된 運動」의 概念을 人民大衆의 基盤에서 充分히 深化시키고 있는지 그 與否에 焦點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基本的으로 大衆路線의 論理構造가 「權力志向性」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컨대 北韓社會에서의 群衆路線은 總動員體制의 組織化와 能率性에 偏重되는 結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手段方法이 目的과 實體를 앞지르는 大衆路線의 메카니즘化가 示顯된다.

本 論文에서 分析한 大衆路線의 창시자 毛澤東의 나라 中共에 있어서도 大衆路線과 이 路線의 「2位1體」物인 新幹部政策을 새로운 「그릇」을 찾기에 바쁘다는 現實的 苦惱를 敘述했다. 하물며 이 中共의 原型을 완전히 土着化 시키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地域의 政權担當 共産主義集團들이 試圖하는 具體的인 「接木問題」는 그 만큼, 어려운 點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狀況에서 筆者가 간단히 概念圖式化한 「革命志向性因子+現實主

義政策因子의 有機的인 癒着關係」는 앞으로 아시아共產主義의 特徵을 내내 代辯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다음 이 大衆路線의 具體的인 政策的 表現으로서의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 發展論」의 理論과 實際는 앞으로 계속 追求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問題는 中共처럼 리더쉽의 發揮도와 政治的 安定性이라는 一次的 整地作業이 사전에 이루어져 있느냐의 與否일 것이다. 中共의 毛澤東路線도 주지하다시피 이 「變形된 近代化 追求政策」을 둘러 싸고, 술한 權力鬭爭을 맛보았다. 北韓共產主義集團의 경우, 1956年에서 58年을 거쳐 61年의 第4次黨大會 개최직전까지 一大肅清선풍을 겪었으며 60年代 後半에 들어와서도 李孝淳·朴金喆등 黨僚派와 抗日遊擊派간에 격렬한 「인·파이팅」이 있었는데, 이러한 「政策論爭+權力鬭爭의 相互聯關性」⁴¹⁾이라는 양상은 「變形된 아시아의 近代化 發展論」의 結果物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大安의 事業體系」, 「靑山里方式」이 中共의 「大慶油田方式」과 「大寨人民公社方式」을 어느 만큼 模倣·改作하여 이른바 土着化했는지의 與否, 즉 中共과 北韓간에서 「農村·都市地域의 不均等發展의 解消志向」이라는 問題에 있어서 몇 퍼센트程度의 類似性和 獨自性이 檢出되느냐 하는 事例研究는 아시아共產主義의 구체적인 特徵을 分析하는데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테크노크라트의 行政官僚엘리트化」라는 新幹部政策이 中共의 경우에도 始發點에 불과한 것 만큼 中共이 그런대로 一般的 유럽式 概念에서 보는 工業社會, 따라서 유럽式 共產主義의 「異腹兄弟」가 되어 가

는 断面이 보이기도 하는 蘇聯型 高度産業社會 — 그러한 타입의 工業社會 문설주에 들어선다고 假定할 때, 과연 이 技術者 출신 幹部가 官僚主義化를 어느 정도 脱皮할 수 있을지 — 이 問題는 상당한 關心의 對象이 된다. 42)

지금은 아직도 「飢餓의 構造」에 「코미트」하는 發展途上의 가난한 農本主義國家 즉 「以農業為基礎, 工業為主導」⁴³⁾의 國家이므로 「農村·都市地域의 不均等發展의 解消志向」, 예컨대 「小兒全工業體系」⁴⁴⁾는 毛澤東路線의 반복적 謳歌속에서 革命的 熱情을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運動」(Bewegung, mouvement, movement)의 概念이 아니고 體制內的 安定性的 保守化 傾向을 띠고 어느 時期에 가서는 「挑戰」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毛澤東과 毛澤東路線에 의하여 「걸 들어진 使徒들」의 獨特한 歷史的 意味內容이 注目의 對象으로 간주되는 所以가 있다. 하물며 大衆路線과 新幹部政策 그리고 이들의 具體的인 現實政策의 表現으로서의 아시아的 近代化 發展論의 理論과 實際가 자체內的 經驗的 築造物일 수 없는 아시아地域의 政權擔當 共產主義集團들의 경우 상술한 挑戰은 훨씬 강도를 갖고 육박해 올 것이다.

문제는 「運動」의 概念이 退潮期에 들어서서 對內外的으로 現實的 適應을 강하게 強要받을 때 아시아 共產主義의 여러가지 特徵들은 「原點」에서 어려움을 나타낼 것이라는 點이다. 그러나 「運動」의 개념이 그런대로 名分論的 展示效果를 아직은 간직하고 있는 狀況에서 예컨대 中共과 北韓간의 事例研究를 보다 客觀的 科學的으로 파헤쳐 보면, 蘇聯型 共產主義를 비롯한 유럽式 共產主義와의 差異點은 구체적으로 檢出되어 나올 것이다.

7.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下的 中共認識論

가. 第2長征 — 새로운 陣痛

『나는 원래 中道左派야』—毛澤東의 이 말이 떠 오른다. 지난 78年 2月 26日에 개막된 第5期全國人民代表大會 제 1次 會議에서 오간 술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며 문득 이 中道左派라는 낱말이 새삼스러이 생각났다. 華國鋒 黨主席 겸 首相의 『政府活動報告』에서 제기된 「經濟數值」는 그 「뿌리」를 이 중도좌파식 「安定團結 國民經濟向上」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安定團結과 國民經濟向上이라는 概念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故毛澤東黨主席은 세가지 중요지시를 1975年 여름무렵 캠페인에 붙였다고 한다. 이름하여

첫째, 프롤레타리아獨裁 理論學習의 強化

둘째, 安定團結

셋째, 國民經濟의 向上이다.

毛澤東의 이 지시가 나타내고 있는 노선은 다음과 같이 設定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테크노크라트 (中共式으로 表現하면 「文職幹部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세번째의 國民經濟의 向上을 기대한다.

다음, 여기서 생기는 「테크노크라트의」 (中共式으로 적어 보면 「부르조아의」) 諸權利의 제한을, 첫번째의 프롤레타리아 獨裁理論學習運動에 의거하는 文革急進派에게 기대를 걸어 본다.

그리하여 이 文職幹部그룹과 文革急進派 사이에서 조성되는 비판투쟁에 대해서는 두번째의 안정단결을 希求한다는 프레임워크 속에 「세가지 指示」는 그 「레종·데플」을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 文職幹部그룹의 總帥가 바로 不倒翁(오뚜기) 鄧小平黨副主席겸 副首相이다. 鄧小平은 자기 휘하에 역사적 人脈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政策集團」을 이루고 있다.

文革急進派란 「4人幫」을 말하는데 「紅의 마음」을 과격하게 구사한 中共版 「트로츠키主義者」들이라고 할 수 있다.

安定團結의 第1기수가 바로 華國鋒黨主席인 것이다.

문제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毛澤東의 「革命的 浪漫主義」는 지나친 樂觀論에 根據하고 있거니와 예컨대 「세상에 어려울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로지 登攀이 있을 따름」이라는 「自信感」에서, 「시라큐즈의 플라톤」再版을 9億人口에게 實驗한 毛主席은, 끝내 「未來의 시도」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코멘트」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지 近代化」(中共 표기로는 「現代化」)를 今世紀內에 완결짓는다는 表現속에서 그 웨이트는 「紅의 열정」보다 「專的 타산」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毛主席의 「세가지 지침」중에서 프롤레타리아獨裁 理論學習運動이라는 「紅의 狂風」은 진정되고 이젠 「學而優則仕」(專門知識을 배워 우수하기만 하면 벼슬자리에 앉는다.)라는 「프로페셔널리즘」이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밝히고 넘어 가야 할 대목이 있다. 즉 「安定團

結」과 「國民經濟向上」이 포용을 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理論學習運動」이 진정화되었다고 해서 「紅의 마음」이 그대로 뒷전에 영원히 매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흔히들 「紅」과 「專」의 개념을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관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毛澤東思想의 진수인 「中庸」을 망각한 사고방식이다. 《實踐論》에서 주장되고 있는 「感性的 인식」이 「理性的 인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테제, 그리고 《矛盾論》, 《人民内部的 矛盾을 시정할데 대하여》에서 제기되고 있는 「敵對的 矛盾」과 「非敵對的 矛盾」의 개념구별 등에서 우리는 社會主義革命(放)과 社會主義建設(収)에 있어서의 中共독자적인 「類型」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는 대립투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개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華·鄧體制下的 中共認識論은, 어떤 論者들이 항용 주장하는 권력투쟁·파벌투쟁 일변도로 관찰해 가지고는 그 實狀이 클로즈업 될 수 없는 것이다. 역시 이 권력 및 파벌투쟁을 「政策對決」과 상호연관 시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中共 경우 뿐만 아니라 蘇聯研究에도 해당된다. 즉 종래의 「크레믈리놀로지」나 全體主義모델 一括化로서는 모스크바의 實狀이 부상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中共의 경우, 蘇聯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유니크 한 면이 있다. 왠 大衆路線이라는 어프로치이다.

大衆路線(Chün-Chung Lu-hsien. 原發音으로는 群衆路線)이란 결국 農民的 志向性を 지칭하는 것이다. 한데 바로 이 農民志向的 大衆路線

의 전통이 어느 면에서는 現代産業國家建設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75년에 카신저 美國務長官과 함께 中共을 방문한바 있는 美國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조세프 크래프트는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中共의 國家指導者중에는 現代産業國家를 이해하고 있는 者는 없다」는 독백이다.

그렇게 보면 鄧小平을 總帥로 하는 「文職幹部그룹」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엘리트들도, 모두 총을 손에 들었던 老革命家들이다. 이번 第5期全國人民代表大會(약칭: 第5期全人代) 第1次會議에서 선출된 國務院요직명단을 보더라도, 예컨대 余秋理 國家計劃委員會(Gosplan) 주임도 財政전문가 이전에 中將 位階까지 올라간 유니폼이자 革命家인 것이다. 鄧小平, 葉劍英, 李先念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專門家は 一朝一夕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長久한 커리어 후에 탄생되는 것이다. 아무리 「紅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플랜트는 고도의 專門技術(Know-how)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2月 26日부터 3月 5日까지 장장 1週日에 걸쳐 개최된 第5期全人代 第1次會議에서 華國鋒黨主席이 의욕적인 「네가지 現代化」를 표방했는데 이 現代化과업을 위한 教育制度改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華國鋒黨主席의 자신에 넘친 「經濟躍進·第2長征」의 슬로전에는 「새로운 진통」이 잉태되어 있다.

本論文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毛澤東路線의 시종일관성을 「紅的狂風」과 「專的 타산」의 갈등개념에서 展開하자는 것이 아

나라, 現代産業國家형성이라는 당면한 國家目標을 向해서 華·鄧領導體制下의 中共이 여하히 그 진로를 노저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産業國家를 형성하려면, 무엇보다도 政治的 安定과 上下간의 단결 및 權力엘리트내부의 「內發性的癒着」이 요긴한 것이다. 이 相互癒着의 「程度」를 우선 가늠하기 위하여 「鄧小平師團」分析을 「歷史的 人脈」과 「政策集團」으로 나누어 檢討해 보고, 이 사단이 華國鋒을 선두로 한 「抗戰幹部」(일명 : 37 幹部)와 여하히 상호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이 「政治的 安定」의 뒷받침 속에서 「네 가지 現代化」는 실제에 있어서 그 주요쟁점으로 무엇을 셋팅하고 있는지 심층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초점을 「技術導入과 科學技術專門家 養成」의 諸問題에 두고자 한다. 또한 이 심층분석을 効率化하기 위해 華國鋒의 『報告』중에서 ① 農業生産 ② 工業生産의 순으로 간단히 일별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下的 中共은 「經濟躍進·第2長征」이라는 구호아래 「自覺」을 內發化하고 있는 것이다.

나. 華國鋒의 「37 幹部」와 鄧小平師團의 相互紐帶

— 內發性的 癒着

이번 第5期全人代 第1次會議에서 國家主席制부활이라는 憲法改正이 없었고 그 자리에 실력자 鄧小平이 앉지 않았다고 뜻밖의 표정을 짓는 專

門家들이 더러 있는 것 같다.

대충, 權力엘리트의 동태를 살펴보면 「나는 第2線에서 經濟發展과 科學技術신장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鄧小平의 말은 일단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5)

왜냐하면 鄧小平이 國家主席이나 總理와 같은 第1線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 사단병력은 우선 黨中央政治局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년 第5期全人代 第1次會議에서 선출된 國務院의 각 주임(委員長격), 각 부장(長官) 34名中 經歷 未詳은 除外하고라도 16名이 黨政간부 즉 鄧小平의 文職간부 그룹출신이다. 그리고 軍幹部出身이 3名이나 된다. 따라서 全體 34名中 19名이 鄧小平사단인데 약 56%나 차지한 셈이다.

經歷未詳者를 더 추적해 가면 黨中央政治局멤버의 경우처럼 70%線은 상회할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19名이 금번 第5期全人代 1次會議에서 어떤 포스트를 맡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 본다.

(1) 黨政幹部(文職幹部)出身

- ① 外相 黃 華
- ② 國家計劃委員會主任 余秋里
- ③ 國家經濟委員會(新設)主任 康世恩
- ④ 國家基本建設委員會主任 谷 牧
- ⑤ 國家科學技術委員會(新設)主任 方 毅
- ⑥ 民族事務委員會(新設)主任 楊靜仁

- ⑦ 公安相 趙蒼璧
- ⑧ 辦公相 (新設) 程子華
- ⑨ 對外貿易相 李 強
- ⑩ 冶金工業相 唐 克
- ⑪ 水利電力相 錢正英
- ⑫ 紡織工業相 (新設) 錢之光
- ⑬ 鐵道相 段君毅
- ⑭ 交通相 葉 飛
- ⑮ 財政相 張勁夫
- ⑯ 文化相 黃 鎮

(2) 軍幹部出身

- ① 國防相 葉劍英
- ② 第2機械工業相 劉 偉
- ③ 第4機械工業相 王 諍

참고로 中國共產黨 第 11 期中央委員會 第 1 次全員會議 (약칭 : 党 11 期 1 中全會) 에서 선출된 中央委員은 201 名 (이 밖에 中央委員後補 132 名이 뽑혔음) 인데, 이 中 党政幹部出身이 106 名으로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軍幹部出身이 61 名으로 30.35%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의 「新生事物」인 大衆代表幹部出身이 겨우 15.92% 밖에 안되는 32 名을 빼다면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는 (壓倒적으로) 83%나 鄧小平사단이 장악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文職幹部그룹」으로서의 党政幹部 그리고 軍幹部를 모조리 鄧

小平의 勢力이라고 간주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 잠깐 鄧小平의 「歷史的 人脈」과 「政策集團」을 <圖表 5>에서 알아 볼 必要가 있다. 편의상 黨中央政治委員에 한정하기로 한다.

<圖表 5> 鄧小平의 歷史的 人脈과 政策集團

가. 歷史的 人脈
① 8路軍 129師團 — 第2野戰軍系 (劉伯承 李德生 陳錫聯 徐向前 蘇振軍)
② 新4軍 — 第3野戰軍系 (韋國清 許世友 李先念 彭 冲)
③ 8路軍 120師團 — 第1野戰軍系 (余秋里)
나. 政策集團
① 對內工作專門家 : 烏蘭夫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副委員長
② 對外工作專門家 : 耿 飈 · 副總理 겸 黨中央對外連絡部長
③ 財政專門家 : 余秋里 · 副總理 겸 國家計劃委員會主任
④ 對外經濟專門家 : 方 毅 · 副總理 겸 國家科學技術委員會主任

出處 : 崔榮, 『鄧小平權力的 支柱와 性向』, 新東亞 (1977年 10月號),

120面 - 127面

이 밖에도 親鄧人物로는, 葉劍英 ·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委員長 (國家元首格에 해당), 聶榮臻 · 黨中央軍事委員會副主席이 있다.

한마디로 鄧小平은 幅넓은 人脈을 形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鄧小平은 「8路軍 129師 — 第2野戰軍」~「新4軍 — 第3野戰軍」계를 축으로, 「8路軍 120師 — 第1野戰軍」~「志願軍」(韓國戰爭에 참전한 이른바 中國人民志願軍)~「華北野戰軍」계의 지지, 더 나아가 廣州의 第4野戰軍系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다.

一級軍区の 司令員은, 2野(4名) 3野(1名) 4野(1名) 志願軍系(3名), 未詳(2名)의 比率이다.

이상 적어 본 바와 같이 「鄧小平師團」은 막강하다. 그렇다면 왜 이번 第5期全人代 1次會議에서 명실상부하게 勢力基盤이 아직 굳지 않고 있는 華國鋒 党主席을 몰아내고 鄧小平이 직접 前面에 나타나 넘버 원의 체제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安定團結이 國民經濟의 약진을 초래한다는 「實務的」이고도 「生産的」인 판단이 鄧小平으로 하여금 「歷史의 人物」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故毛澤東主席이 華國鋒의 총리임명時 「你辦事 我放心」(자네가 일을 맡는다니 나는 마음이 놓여)이라고 독백했다는 사실과 鄧小平의 「國家經濟發展과 科學技術 신장에 專念」하겠다는 發想은, 과연 노련한 均衡감각의 소지자로서의 枯淡한 革命家像을 풍기고 있다고나 할까.

아 물론, 많은 論者들의 이른바 「中共版天下大亂」이라는 論理를 비웃거나 하는 듯이 華國鋒을 필두로 한, 抗戰간부(일명: 37幹部. 1937年の 中·日戰爭에 약관의 나이로 참전했다고 해서 이렇게 命名됨)를 노련한 鄧小平師團이 어시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認識論이 전제가 된다면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는 「第2의 毛澤東·周恩來體制」로 발전하여 나갈 것이며 이번 5期全人代에서

일단 政治的 安定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鄧小平의 歷史的 人脈과 政策集團의 성분분석에서 表現된 바와 같이 R因子(Revolutionary Factor: 革命志向性因子)와 P因子(Pragmatic Factor: 實用主義政策因子)의 比率은 党10期1中全會의 「30% 대 70%」에서 「17% 대 83%」로 党11期1中全會에서는 P因子쪽에 壓到的으로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게다가 R因子의 性向도 예컨대 毛澤東이 駐中共 프랑스大使 뒤르빌 마낙크에게 이야기한 「中道左派」의 方向을 잡고 있으니 「文革텔런트」4人幫의 生硬한 金屬性 소음은, 77年の 党11期中央委員會 第1次全員會議(1中全會) 그리고 금년 2月 下旬에 며칠 간격을 두고 잇달아 開催된 党11期2中全會와 5期全人代 1次會議 등을 통해 진정화되어 버렸다.

이 「安定되고 鎮靜化된」분위기 속에서 中共은 이제부터 「네가지 現代化」의 과업추진에 총력량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다. 네가지 現代化의 課題

이번 第5期全人代 第1次會議開幕時에 發表된 『政府活動報告』에서 華國鋒首相은 다음과 같이 「總任務」를 제기했다. 즉 『今世紀內에 우리나라를 농업, 工業, 國防, 科學技術의 現代化된 위대한 社會主義의 強國으로 올려 세워야 한다』는 總任務이다.

그런데 이 「네가지 現代化」는 故周恩來總理가 75年 1月の 第4期全國人民代表大會 第1次會議에서 행한 『政府活動報告』에서 「今世紀內에 農業, 工業, 國防, 科學 技術의 現代化를 전면적으로 實現하여 우리나라의 國

民經濟를 세계의 前列에 세운다」고 서술한 다음부터 유명해진 것이다.

또한 周恩來는 同 報告에서 毛澤東主席의 지시도 인용하고 있다. 즉 「自力更生을 主로 하고 外國의 원조를 獲得하는 것을 補助로 하여 盲信을 타파하고 獨立自主로서 工業을 하고 農業을 하고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을 하여 奴隸思想을 타파하여 教條主義를 장사지내고 外國의 좋은 經驗을 진지하게 배우고 또 外國의 좋지 않은 經驗도 반드시 研究하여 이것을 教訓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路線이다」

그런데 毛澤東이 지시한, 「外國의 원조를 獲得한다」고 하는 表現은 아주 신선미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周恩來의 『政府活動報告』는, 今世紀內에 中共經濟를 現代化하여 世界의 前列에 세울 決意를 가짐과 아울러 外國의 援助獲得에 積極的이라는 事實을 毛主席의 말을 인용하여 表明한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毛主席의 經濟思想이 결코 對外的으로 閉鎖性을 띤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中共은 毛主席의 지시대로 經濟의 現代化에 當面하여 外國의 援助獲得에 積極的인 展開를 보여 왔다. 장기간 美國을 중심으로한 西方側 諸國의 「中共封鎖」政策이 닉슨訪中으로 말이암아 바뀌어지고 70年代에 들어와서의 中共의 國際社會목표는 급격한 西歐科學技術, 文明의 流入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周恩來總理가 구가한 中共現代化의 웅대한 비전은 어떠한 것일까. 中國語로 말하는 「現代化」는 결코 西方諸國의 「近代化」하고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거에 섭취하는 西方諸國의 科學技術 文明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大型 플랜트를 구사해야 할 中共의 科學技術陣은 그 자체가 커리어를 쌓지 못해 상당한 後進性을 갖

고 있거니와 그보다 더 어려운 사실은, 어찌간히 트레이닝이 적립되면 그
런대로 형성될 中共科學 技術陣이 당면한 農民的 體質의 9億의 「개미
떼」들이다.

中共인텔리 앞에는 오랜 세월이 걸쳐 西方諸國과 日本의 植民地軍國主
義的 지배에 시달리고, 中·蘇對立으로 묶여 배타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
던 9億의 後進農民的體質의 「百姓」이 佇立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인텔리들은 스스로의 트레이닝과 農民志向的 體質에 흠뻑 耽溺된
中共國民을 이끌어 가야할 「二重의 苦惱」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中共을 世界の 前列에 세우겠다는 비전을 남겨 놓고 周恩來는 갔으나,
그 遺志를 받아, 華國鋒·鄧小平指導體制는 「國民經濟의 現代化」라는 커
다란 課題와 씨름하고자 한다. 「네가지 現代化」와 씨름한다고 할 경
우 우선 그 담당자 (Träger)의 大量創出이 시급하다. 또한 이렇게
創出된 담당자들이 現代産業의 論理와 생리를 合理的으로 이해하는 「程
度」가 어느 水準인지 - 이러한 「基本的인 진통」이 있다. 根本的인 人
間形成에 있어서, 中共人民은 「工作人」(homo fabricos)概念으로만 整
理할 수 없는 「紅의 마음」에 코미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紅의 마음」과 「專의 打算」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能
力일변도의 모랄에 입각한 西方諸國의 近代化하고는 本質的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人性이 本質的으로 다르면서도 技術(ars)面에서 中
共獨自의인 「工作人」을 형성코자 하는데 華·鄧體制의 苦惱가 있는 것
이다.

결국 이들이 現代化하고자 하는 國家는 社會主義國家인데, 蘇聯모델은 절

대 용납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中共은 새로운 獨自的인 「類型」을 찾아, 中南海타입의 自覺을 接木시킬 素地 (Boden)을 사방으로 물색하면서, 人跡未踏의 現代化路線으로 말이암아 외로운 苦鬪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華國鋒·鄧小平指導體制가 절규하고 있는 「新躍進·第2長征」의 캐치 프레이즈속에서 우리는 비장한 결의를 보는 것 같다.

1976年 元旦 82歲의 老革命家 毛澤東主席은 「세상에 어려울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로지 登攀이 있을 따름」이라는 詩를 發表했다. 이 詩心에서 中共은 獨自的으로 「自覺」되어 가는 것이리라. 그러면 「네개의 現代化」에 대한 華國鋒首相의 報告內容中에서 農·工業生産面을 간추려 살펴 보기로 한다.

①今世紀末에는 우리 나라의 主要農産物의 單位面積當 收穫量은 世界の 先進的 레벨에 달하거나 상회하게 되어 主要工業製品의 生産量도 各各 가장 발달한 資本主義國家에 가까워지고 곧 뒤따르고 추월하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農業生産은 機械化, 電化, 水利化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며, 工業生産은, 主要部門이 오토메이션(自動)化하고 交通運輸는 大部分이 高速化하여 勞動生産性을 大幅 向上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은 現代科學技術의 成果를 널리 運用하여 새로운 材料와 새로운 에너지를 巧 게 이용하여, 主要製品과 生産工程의 現代化를 實現하여 經濟技術指標가 各 各 世界の 先進的 레벨에 가까워지고 곧 뒤따르고 추월하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이 임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1976년부터 85년까지의 10년간이

중요하다. 國務院은 75년에 作成한 「國民經濟 發展 10個年計劃要綱草案」에 補充과 修正을 가했다. 10個年計劃에 의하면 이 10年間に 우리 나라는 全國의 獨立된, 비교적 정돈이 된 工業體系와 國民經濟體系를 만들어 내고 西南, 西北, 中南, 華東, 華北, 東北의 6대지구의 經濟體系를 基本的으로 만들어 냈고 同時에 內陸을 強大한 戰略的 후방기지로 構築한다.

③ 85년에는 食糧의 收穫量은 8億톤, 粗鋼의 生産量은 6千萬톤이 된다. 78년부터 85년까지의 8年間 우리나라의 農業生産總額의 年間伸張率은 4%~5%로, 工業生産總額의 伸張率은 10%이상으로 되며 이 8年間に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主要工業製品의 增加量은 過去 28年間の 그것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이 8年間の 國家의 財政收入과 基本建設에 대한 投資額은 各各 過去 28年間の 總額에 相當한다. 46)

방금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要綱」중에서 農業, 工業生産의 成長目標을 數値로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이 「數値」 자체에 대한 分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에서는 金후 8年間に 穀物生産을 4億톤까지 伸張하고 鐵鋼生産은 6千萬톤까지 인상하고 싶다고 한다. 「食糧과 鐵鋼을 元帥로 하고 電力과 鐵道輸送을 先兵으로 하여, 均衡이 잡힌 國民經濟의 發展」⁴⁷⁾이라는 論旨가 주창하듯이 食糧과 鐵鋼部門은 中共經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인데도 불구하고 뒤떨어지고 있었다. 앞으로 이 兩個부문에 가장 많은 努力을 集中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것은 鄧小平의 주장과 같이 現代化는 「鐵鋼과 石炭」이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바로 여기에 毛主席의 지시 「備戰·備荒·為人民」에 동격으로, 아니 現代産業國家形成이라는 論理로 볼 때에는 그 이상의 웨이트가 선정될 수 있는 關鍵 産業의 重要性이 클로우즈·업되는 것이다.

現在의 中共의 穀物生産高는 美CIA 등의 추정으로는, 약 2億8千5百萬톤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8年間に 4億톤까지 伸張시킬려면 年間 4%가 增産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計算이다. 이때까지의 穀物生産高의 伸張率은 中共側에서는 4%說을 유포하고 있는데 西方側의 추정으로는 2%強으로 보고 있는 것 만큼, 상당히 타이트한 增産計劃이라고 볼 수 있다. 48)

75年 이후 계속 農業의 機械化가 宣傳되어 온 것은 穀物을 포함한 農業生産增強策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과연 機械化 實現이 곧 增産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어렵다고 보는 見解도 있다. 鐵鋼을 8年동안에 6千萬톤으로 인상하기 위해 鐵鋼 콤비나아트를 10個所에 建設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現在 中共의 鐵鋼生産高는 2,500萬톤 前後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8年동안에 2.4배로 인상은 풀이된다. 年間 10%餘의 伸張率로 增産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計算이다.

中共서는 今世紀 中에 美國의 鐵鋼生産에 바짝 뒤따라 보겠다는 의욕도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中共은 지난 78年2月初에 日本과 往復 200億달러 規模의 長期貿易協定을 締結했는데 이 協定에 바로 上海臨海地域에 세울 世界 最大規模의 製鐵所 建設協力이 약속되어 있다. 49)

現在 日本의 鐵鋼生産은 약 1億톤, 美國은 1億1,300萬톤인데, 中共이

安定團結을 지속하여 國民經濟向上에 주력하는 지금의 華·鄧領導體制가 堅固化된다면 生産은 計劃대로 진보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中共이 과잉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美國을 뒤따른다」는 기세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다만 日·中共長期貿易協定에 포함되어 있는 製鐵所 建設計劃이 순조롭게 진전된다 하더라도 80年 후반에 操業이 시작될 豫定이므로 85년까지의 増産計劃에 어느만큼 有效할지 의문시하는 論者들도 많다. 지금까지 社會主義建設의 元帥格인 食糧과 鐵鋼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요컨대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要綱」이 85년까지 소기의 노르마를 達成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技術」(technology)導入이며, 여기서 形成될 科學者와 技術專門家(technocrat)양성 問題인 것이다.

라. 技術導入과 科學·技術專門家양성

工業化를 추진해 나갈 경우 大規模 企業生産樣式과 中小規模 生産樣式의 併用 或은 先進的 輸入技術과 傳統的 技術의 併用이라고 하는 「併進路線」에 의한 技術革新은 今後에도 계속되겠으나 北京大學의 胡代光교수는 예컨대, 鐵鋼業과 같은 裝置産業은 전적으로 大規模 企業中心으로 추진하고 農業機械의 경우 등은 업종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겠으나 大規模 企業과 中小規模企業에 의한 生産樣式을 併用해 간다는 견해를 슬회하여 中共의 現代化方向이 위치해야 할 이미지를 시사하고 있다.

4人幫의 지배당시는 外國技術의 역할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政策이 시행되었는데 4人幫추방후, 工業部門의 많은 設備가 非效率的인 生産技術에

지배되고 있다는 現實的·認識에 입각하여 先進的 技術을 積極적으로 導入하여, 勞動生産性的 向上과 科學技術의 現代化를 기도하는 政策이 중시되고 있다. 그 前提로서 海外로부터의 「플랜트 技術의 輸入」과 教育의 質의 向上에 의한 「科學者와 技術專門家の 양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플랜트 技術導入」의 경우 華·鄧領導體制는 延拂에 의한 中短期채무는 받아들이나, 政府借款이라든가 外國資本에 의한 國內資源開發에 是 強力히 반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自力更生이 主고, 外國援助의 獲得이 보조」라는 毛澤東經濟思想의 끈질긴 班點을 발견할 수 있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 西方先進國家로부터 導入된 플랜트 技術의 업종은 石油化學, 鐵鋼 發電, 石油開發이라고 하는 重要基幹産業分野의 것이 많고, 今後 導入될 업종도 모두 先端技術에 속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展望된다.

다음 科學者와 技術專門家の 양성문제를 알아 보자.

先進的 技術의 導入에 있어서는 우선 技術吸收能力을 갖는 技術者集團의 양성이 必要하다. 하이만은 그의 論文 《中共에 있어서의 技術의 習得과 普及》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高級技術을 應用·同化하기 위한 高도로 訓練된 技術者集團의 結여가 中共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장애가 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技術者集團을 形成하려면 數 10年을 요하는데, 더욱기 現在 中共이 經驗主義를 중시하고 <大衆路線>을 우선시하여, 高等教育을 경시하는 것과 같은 方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한층 더 장애를 크게 할 것이다」⁵⁰⁾

마. 「自覺」— 技術受容態勢와 教育의 正常化문제

「自覺」은 스타트했다. 우선 「國民經濟發展 10年計劃要綱」이 묵중한 체중을 加壓하면서 內發性的 다이내미즘을 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이내미즘은 「專의 合理的 打算」에 투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技術受容態勢」와 「教育의 정상화」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農民的 體質을 가다듬어 온 9億의 「푸른 개미떼들」이 서구의 전통적인 近代産業國家形成이라는 構圖를 직수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蘇聯의 네이션 빌딩 모델을 「文職幹部그룹」중의 最多蘇聯 偏向分子라 하더라도 拳論할 수 없을만큼, 毛澤東思想과 路線에 9億의 國民은 모두 體制內在化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備戰·備荒·為人民」이라는 根本적인 毛路線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쳐 中共의 基本認識의 內容이 된다.

問題의 초점은 이 基本認識과 지금 움트고 있는 「自覺」이 同時多發性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데에 있다.

결국 中共은 大衆路線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그러므로 「3大差異의 縮少」는 여전히 그 누가 中共의 통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추진해 나갈 基本哲學인 것이다.

하지만 中共은 現實로 蘇聯의 威脅에 直面하고 있다. 그리고 9億이라는 人口를 부양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鐵鋼과 食糧」이 先進強大國水準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中共問題를 다룰 때 이 「基本哲學과 당면한 現實」을 相互 癒着시켜서 보는 態度가 必要하다. 그렇지 않다면 毛澤東은 내내 急進左派였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鄧小平이 재부권했으니 이제 中共은 蘇聯의 네이선 빌딩모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속단을 낳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華國鋒黨主席의 「新躍進·第2長征」이라는 웅대한 비전 제시는, 構體的 現實的으로는 鄧小平의 언명 「現代化는 鐵鋼과 石炭이 결정한다」는 내용과 相互癒着되는 것이다.

아무튼 1985년에 끝나는 「國民經濟發展 10個年計劃」이 그 소기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時間」에 맡길 일이지만 만일 成功할 경우 하이만교수가 거론하고 있는 大衆路線의 의미는 많이 퇴색될 것인데 그 「程度」의 높고 낮음에 따라, 中共 스스로가 中·蘇理念紛爭에서 제시한 中共모델은 빛의 喪失度를 결정 받을 것이다. 그리고 11年間に 걸친 文化大革命의 「참똥」도 그 「程度」의 水準에 따라 권력 투쟁이었느냐의 여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新躍進·第2長征」으로 表現되는 中共의 「自覺」은 커다란 관심거리가 된다. 紅의 「狂風」을 「順風」으로 化하고 專의 「打算」을 「實踐 모랄」로 昇化시킬 때, 이 「自覺」은 「歷史의 걸잡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中共의 백성들이나 權力엘리트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격변을 거듭한 政情속에서 「疲困」을 體質化시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당면한 「自覺」의 向方은 經濟數値의 向上과 「살기좋은」生活環境의 確保와 그리고 좀 野望이 있는 國民을 위해서는 「學而優則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서 一次的으로 마무리를 볼 것이다.

8. 結 論

「毛澤東思想의 崇拜에 거의 맞먹는, 科學에 대한 尊敬이 지금의 中共에는 있다」⁵¹⁾ 고 指摘하고 있는 루시안 W. 파이教授는, 現在의 中共에서 實用主義政策이 지연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實用主義의 「딜레머」는, 세가지 分野 즉 教育, 勞賃 그리고 工業센터에 必要한 經濟計劃에 있다고 叙述하고 있다.

이 경우, 파이教授가 지적하고 있는 이 세가지 「딜레머」의 內容은 대충 이러하다.

우선, 「教育」면에서는,

- ① 學點
- ② 教科內容과 學生의 士氣
- ③ 特殊 小學校, 中學校인 20 個校의 新設決定
- ④ 訓練받은 科學者(教職者)의 數的 限定

과 같은 「딜레머」가 있다는 指摘이다.

다음 「勞賃」問題에 있어서는,

- ① 勞賃引上幅의 制定
- ② 生産성과 福祉의 뒤엎힘(勞動生産性的의 低下問題)
- ③ 勞動의 差異

등을 「딜레머」로 挙論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計劃」에 있어서는,

- ① 政策決定이 有益성에 입각하지 않고 있음.

② 効用性的 限界

③ 計劃立案者の 失敗는 政治的 外優을 惹起한다.

는 등, 세가지 立場에서 「딜레머」를 指摘하고 있다. 52)

이러한 現狀分析의 結論部分인 「實用主義의 影響」 항목에서, 루시안·파이는, 實用主義의 「딜레머」가 世界問題에 있어서의 中共의 役割에 중요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 때 제기되는 命題를, 그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要約하고 있다. 53)

① 蘇聯에 대한 zunehmende 敵意의 增加

② 中共의 注意와 精力이 當分간은 안으로 쏠릴 것이므로 對外政策은 주로 修辭學的인 것이며, 中共의 目標를 促進케 될 「이니셔티브」를, 他國家로 하여금 說得시켜 취하게끔 할 것이다.

③ 中共의 現代化決定은, 西方文化에 대한 傳統的인 中共의 二重傾向을 增加케 할 世界의 趨勢로 中共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나게 할 것이다.

④ 實用主義의 勝利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참된 레닌主義的 精神에서 볼 때, 長期的인 이데올로기의 目標를 固守할 수 있으며 또 固守하고자 할 것이다.

以上, 파이教授가 叙述한 「中共에 있어서의 實用主義의 影響」을 알아보았거니와, 다음과 같은 中共官吏의 指摘을 파이教授가 傳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重要하다.

中共官吏는, 「短期間의 考慮事項」 (short-run considerations) 과 「長期間의 原則」 (long-run principles) 간의 差異點에 대하여 明快하게 말하고 있었다. 實用主義的 行態와 窮極的인 이데올로기의 公約을

結合하는 이 能力은, 美國式 實用主義概念과 葛藤을 일으키고 있으며, 따라서 美·中共關係에 있어서의 誤解의 源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4)

루시안 W. 파이教授가 지적하고 있는 「實用主義的 行態와 이데올로기의 公約의 結合能力」은, 요컨대, 筆者가 本論文 第7章에서 提起한 「基本哲學과 當面한 現實의 相互癒着」과 一致되는 이야기이다.

결국, 中共認識論의 基礎가 되어야 할 命題는, 히라마즈·시게오教授로 지적하고 있듯이, 「毛澤東(軍事)思想은 中共의 社會的 經濟的 條件 或은 風土的 條件에서 創出된 것」 55) 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上述한 파이教授나 히라마즈教授의 指摘은, 筆者가 제기한 「革命志向性 因子(R-factor) + 實用主義政策因子(P-factor)의 相互癒着關係」라는 概念圖式을 立證해 주는 셈이 되어,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따라서 「短期間의 考慮事項」일 수 있는, 「4個의 現代化」와 「長期間의 이데올로기의 公約」일 수 있는, 毛澤東思想의 大衆路線에 立却한 基本統治哲學을 癒着시켜서, 現實政治體制로서의 華國鋒·鄧小平領導體制下的 中共을 觀察하는, 中共認識論이 무엇보다도 必要할 것이다.

이 경우, 「短期間의 考慮事項」인 「4個의 現代化課題」의 解決時期를 언제까지로 잡느냐 하는 問題(中共指導層은 今世紀末까지로 잡고 있음)와, 그리고 이것보다 基本的인 面에서 더 重要的, 「現實的 實踐모랄의 作用指針」으로서의 「毛澤東路線」의 時代的 適用에 관한 「解釋」의 向方에 따라, 이 R因子와 P因子의 濃度는, 각각 그 明暗의 起伏에 對한 「3分7分論」의 妙味를 描寫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볼 때, 社會主義革命(放)과 社會主義建設(収)에 있

어서의 「中共類型」의 「프로퍼」는, 이른바 「사이클現象」속에서 上·下作用은 엇보이겠으나,⁵⁶⁾ 그 基本性格은 계속 堅持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여기에 「네이션·빌딩」構圖에 있어서의 「中共類型」의 獨自性 즉 「蘇聯類型」과는 本質적으로 相異한, 아시아의 工作人(homo fabricos)를 創出코자 하는, 「大衆路線」의 內發性的 癒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指摘할 수 있을 것이다.

注 記

- 1) Edward Hallett Carr, The Bolshevik Revolution, 1917 ~ 1923
(London : MacMillan & Co., 1954), PP.253 ~ 363. Leonard Schapiro, The Origin of the Communist Autocracy : Political opposition in the Soviet State, 1st Phase 1917 ~ 1922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PP.211ff., 349.
- 2) G. マルチネ著, 熊田 亨譯, 五つの 共産主義 (上) (東京 : 岩波新書,
1972年), 53面 ~ 58面
- 3) Henry W. Morton and Rudolf L. Tökés (eds.), Soviet Politics and Society in the 1970'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4),
PP.223, 301 and 346.
- 4) 溪内 謙, スターリン政治体制の成立 第2部 (東京 : 岩波書店, 1972年),
103面 ~ 107面, 186面 ~ 187面, 387面 ~ 402面.
- 5) 溪内 謙, スターリン政治体制の成立 第1部 (東京 : 岩波書店, 1970年),
11面 ~ 13面.
- 6) 溪内 謙, スターリン政治体制の成立, 第2部, 114面 ~ 162面.
- 7) John A. Armstrong, Ideology, Politics,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P.21 ~ 22, 120 ~ 21, 140 ff.
- 8) 蘇聯共産党的 創党時부터 흐루시초프時期까지의 철저하고도 견식이 높

은 党史研究書를 알아보려면,

- 9) 이 「蘇聯型」社會主義 즉 蘇聯類型的 第3世界後進國適用에 關해서는 다음 文獻을 參照.

David E. Albright,

"The Soviet Model : A Development Alternative for the Third World," in Henry W. Morton & Rudolf L. Tökes (eds.), Soviet Politics and Society in the 1970'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4), PP.299 ~ 339, See Leonard Schapiro,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New York : Random House, 1960).

- 10) A. Doak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PP.99, 143, 528, 535.

- 11) Mark Selden, "The Yen-an Legacy : The Mass Line," in A. Doak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PP.99 ~ 151

- 12) 三反運動 = 汚職, 浪費, 官僚主義의 三害에 反對하는 運動. 三反運動은 黨·政·軍 工作員의 汚職, 浪費, 官僚主義의 三害에 反對하여 提起된 綱紀肅正運動으로, 1951年 10月의 人民政治協商會議 第3次全國委員會에서 決定되어, 12月부터 다음 해인 1952年 6月까지 五反運動과 함께 全國적으로 展開되었다. 五反運動 = 資產階級이 體質化하고 있던 五毒 (贈收賄, 脫稅, 國家資材의 竊盜, 政府財產濫用, 國家의 經濟

情報누설)에 反對하는 運動. 五反運動은 1951年 10月 人民政治協商會議 第3次全國委員會에서 決定되어, 三反運動과 함께 1951~52年 에 걸쳐 全國적으로 展開되었다.

13) 四清運動=네 가지 것을 깨끗하게 하여 不正을 고쳐 純潔을 保存하는 運動. 1962~64年에 걸쳐서 強調된 農林工作에 있어서의 四清은, 在庫, 帳簿, 勞動點數, 財産을 點檢하여 不正을 고치는 것을 意味했다가 나중에 政治, 思想, 組織, 經濟의 네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指摘하게 되었다. 즉 四清運動은 社會主義教育運動을 가리킨다.

14) 崔 榮, 『中共軍의 發展過程과 「革命化」路線』, 政經研究, 第72號 (1971年 1月), 99面~101面.

15) 社會主義農村教育運動등 毛澤東路線이 窮極적으로 바라고 있는 革命志向性的의 運動.

16) Conrad Brandt, Stalin's Failure in China, 1924~27, P.109.

「大衆路線의 論理構造」에 대한 理論的 批判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三浦つとむ, 指導者の理論 (東京:勁草書房, 1960年).

17) 崔 榮, 『批林·批孔運動의 性格과 展開』, 立法調查月報, 第77號 (1974年 5月), 23面~29面 參照.

Harry Harding, "Political Trends in China since the Cultural Revolution: Questions and Answers," "China in the World Today"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hiladelphia, July 1972), P.82

- 18) 「길들여진 使徒」(tamed disciple)이라는 概念은, 예컨대 막스·베버의 「任命된 使徒」(appointed disciple)라는 概念과는 相異한 것이다.
- 19) 大衆의 幹部化— 幹部의 大衆化 農民的 志向性. 北韓의 金日成集團이 1962年 12月の 党 4期 5次全에서 표방한 「4大軍事路線」중 「全軍의 幹部化」는 바로 이 中共 스타일을 模倣·改作한 것이다.
- 20) 「毛澤東의 思想」과 「毛澤東思想」의 區別을 알아 보려면 下記書 參照.
野村汚一, 中國革命の思想 (東京: 岩波書店, 1971年), 351面~ 357面.
- 21) 西川 潤, 『中國は第三世界のモデルとなるか』, 中央公論 (1974年 12月特大號), 199面~ 213面 參照.
- 22) 李富春, 『1960年の國民經濟計劃草案についての報告』, 中華人民共和國 第2期全國人民代表大會 第2回會議文獻集 (北京: 外文出版社, 1960年 3月 30日) 參照.
- 23) 崔 榮, 『中共과 아시아의 勢力均衡』, 新東亞 (1971年 6月號), 220面.
- 24) 勞働者와 農民, 都市와 農村, 精神勞働과 肉體勞働의 3差를 縮少·解消코자 하는 努力.
- 25) 高瀨 淨, 朝鮮社會主義經濟の研究 (東京: 博文社, 1973年), 163面~ 165面.
- 26) 「大安의 事業體系」의 本質에 關해서는, 高瀨 淨 著, 上揭書, 99面~ 104面 參照.

勤勞者 , 1974年 第8號 (388) , 40面~ 45面.

27) 「青山里方式」에 관해서는,

藤島宇内, 畑田重夫 編, 現代朝鮮論 (東京: 勁草書房, 1966年), 144面
~ 159面 參照.

勤勞者 , 1974年 第2號 (382) , 53面 ~ 58面

28) 「大慶油田方式」에 관해서는,

『特集: 中國社會主義經濟の理論と政策』, 中國研究月報 第257號
(1969年 7月號) (東京: 中國研究所), 24面 參照

『大慶大油田』, 中國 (1972年 7月號), 32面~ 46面 參照.

29) 「大寨人民公社方式」에 관해서는,

菅沼正久, 『社會主義社會における工業と農業の關係』, 中國研究月報 第
318號 (1974年 8月號), 17面~ 19面 參照.

大島 清, 『大寨人民公社』, 世界 (1973年 10月號), 262面 ~ 275面.

30) 中共의 科學技術發展의 趨勢를 알아보는 한 例로서,

武吉次朗, 『中國の科學技術發展』, アジア經濟旬報 789號 (1970年 4
月 下旬號), 1面 ~ 8面 參照.

大慶油田의 「보오링」新記錄에 관해서는 北京周報 1969年 39號,
26面に 叙述되어 있음.

31) 『朝鮮勞動黨 第5回大會における金日成報告の全文』, 軍事研究 (1971年
2月號), 162面.

32) 自力更生이라는 낱말은, 1939年 무렵, 岡村寧次·北支方面軍司令官의
惡名 높은 「3光作戰」에 對항하기 위해, 當時 延安에 蟄居하고 있

있던 毛澤東이 考察해 낸 것으로, 그 正式캠페인의 구호는 이러하다.

「自力更生・抗大作風」.

33) 西川 潤, 『飢えの構造』, 中央公論 (1973年 9月特大號), 89面 ~ 108面.

34) 北京周報 50號 (1971年 12月 14日), 6面.

北京周報 22號 (1972年 5月 23日), 8面.

35) 北京周報 40號 (1968年 10月 8日)

北京周報 44號 (1968年 11月 5日)

北京周報 1號 (1969年 1月 7日).

『中國共產黨 第10次全國代表大會에서의 周恩來政治報告 (1973年 8月 24日)』, 安保問題研究: 資料編 1973 (서울: 國防大學院, 1974年), 268面 ~ 269面.

36) 金日成著作選集 第5卷, 1974年 平壤版, 216面.

37) William W. Whitson, "China's Quest for Technolog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 (July-August 1973), pp. 16 ~ 30.

38) 周恩來디자인 (Chou En-lai Design)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文獻은 다음과 같다.

①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3:3 ~ 4

(Summer-Fall 1971), pp. 31 ~ 59

② New York Times, August 10, 1971, pp. 1, 14 ~ 15

③ New York Times, November 16, 1971, p. 16

- ④ Peking Review, November 19, 1971, PP.5 ~ 9
- 39) 毛澤東, 『民族戦争における中國共産党の地位』, 毛澤東選集 第4卷, 毛澤東選集刊行會編譯(京都:三一書房, 1954年), 20面.
- 40) 安保問題研究:總覽編, 1973
(서울:國防大學院安保問題研究所, 1974年), 283面 ~ 285面.
- 41) 北韓의 「政策論争+權力鬭争의 相互聯關性」에 관해서는,
崔榮, 『北韓政治權力的 變遷過程』, 北韓 (1972年 8月號), 124面 ~ 141面 參照.
- 42) See Martin K. Whyte, "Red vs Expert : Peking's Changing Policy," Problems of Communism, Vol. XXI (November-December 1972), PP.18 ~ 27.
- 43) 管沼正久, 『社會主義社會における工業と農業の關係』, 中國研究月報 第318號 (1974年 8月號), 2面 ~ 9面.
- 44) Harry Harding, "China : Toward Revolutionary Pragmatism," Asian Survey, vol. x1, No. 1 (January 1971), P.59.
- 45) 鄧小平의 간단한 經歷에 관해서는, see TIME, November 27, 1978, PP.18 ~ 19
- 46) Lucian W. Pye, "The Puzzles of Chinese Pragmatism," Foreign Policy, No. 31 (Summer 1978), P.122.
- 47) 國家計劃委員會 『社會主義建設的偉大指針』人民日報 1977年 9月 12日.
- 48) "China's Great Leap Outward," TIME, November 27, 1978, P.19
- 49) 日本과의 貿易協定內容뿐만 아니라, 프랑스, 英國, 西獨, 美國과의 交易

內譯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See TIME, November 27, 1978, pp. 17 ~ 18

50) 美議會上下兩院合同經濟委員會編, 中共經濟의 再評價, 1975年 7月 參照.

51) Lucian W. Pye, "The Puzzles of Chinese Pragmatism,"

Foreign Policy, No. 31 (summer 1978), P. 124

52) Pye, "The Puzzles of Chinese Pragmatism," pp. 123 ~ 134.

53) Ibid., pp. 134 ~ 135.

54) Ibid., p. 135

55) 平松茂雄, 『中國の軍事路線に關する - 考察(下)』, 新防衛論集, 第5卷
第1號(1977年 6月), 46面.

56) 崔 榮, 『北方三角關係展望과 그것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統一政
策, 第3卷 第2號(1977年 8月), 27面.



(Summary)

Comparative Study on the Patterns of Communism
as Actual Political Systems

by Choi Yung

(National Defense College)

1. History of the formation of the Soviet-type of
Communism

In this chapter, The progress of the Soviet type of communism is described from the war-time communism period through the period of NEP to the schema of the 'industrialized socialism'.

Especially,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into the 'coercive total collectivization' resulted from the success of 'Ural-Siberia Method' is dealt with.

2. Characteristics of the Soviet-type of communism

A) Agriculture and Labour

In the field of Agriculture, the 'collectivization' was performed by means of the administrative power coersively and totally. Marx-Engels' idea of the large-scale mechanized collective farm (kolkhoz) is different from that of Stalinist model i.e. the soviet-socialist method which has its characteristics in 'coercion' by the means of the method of its performance.

Soviet regime took such a method because there were no spontaneous moments of farmers (Musik) in agriculture there. Furthermore it could be impossible to build the large-scale mechanized collective farm in its full scale because the regime needed a compromise with the farmers who came to have their own farm after the Revolution and they were permitted to have individual side-jobs.

Consequently,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resulted to be duplicated and is so.

Next, the labour-problem can be treated in the connection with the tasks of the rapid heavy-industrialization.

So Figure-1 shows the productivity of main industrial products, Figure-2 shows the ratio of the productions of productive means and the productions of consumer goods, and Figure- 3 analyzes the class-structure of the inhabitants.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soviet system was transformed into the managing-form of working system of the Kolkhoz-farmer and Industry-workers.

When the Stalin Constitution was promulgated, the Stalinist-type of social system was confirmed in its base.

B) Democratic Centralism and Bureacracy

The rapid progress of the heavy-industrialization was performed by the central planning economic style. This is, in some sense, concerned with the habitude of Bolshevik party.

Industries only worked by the production-orders of the Central Planning Bureau, so they

were called "Unit=Zveno" which only performed according to the orders, so they had no identity and solidarity.

The excess of the organizing intention which is a criterion of socialism makes bureacratic style. This pervaded even into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state institutions.

Thus the sturcture which could be named 'the structure of occupational classes' was formed in any fields of Soviet society. This, we can call, the soviet type of socialism.

3.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have its presumption in vast poor class, especially in farmer class.

The analysis of this factor consists in the analysis of both (a) the theory of socialist class and (b) type analysis.

Here, the most important point is on the poor farming class which is over-populated.

Con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are, as Neo-democratic stage

r

proves, the same as that of colonial types.

4. Characteristics of Communist China's Power
Pattern-'Mass Line'

In comparison with the soviet socialism which has its characteristics in 'hierarchical' bureaucracy, Communist China is characterized by its Mass-Line (Chün-chung Lu-hsien).

This idea of Mass-Line is pervaded into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state institutions.

This can be divided into 2 factors; the structure of its logic and its reality.

5. Characteristics of Asiatic Communism

A) Theory and practice of transformed "Asiatic Communism"

Figure-4 shows the comparison of the setting up of the weight of the political dispute between the Asiatic communism and soviet-type.

The main items are;

- a. The management by technocrat vs. that by labourer.
- b. Introduction of technique vs. Self-development of technique.
- c. Progressivism vs. "leap forward" in Industrialization tempo.
- d. Primacy of technology vs. primacy of politics.
- e. Regular education vs. regular and field-work education in technician-training.

B) The Conflict of the concept of "Movement" and "Inner systematic conservatism".

Because Communist China is yet the Agricultural State which "Agriculture make fundamentals and engineering leads" and commits the "structure of hunger", the intention of concealing the unbalanced development of the rural and urban can be provoked by the Mao's line, i.e., reiteration of the "Mass-Line". But this does not imply the Movement (Bewegung). So at some time when the system-immanent stability factors come to be conservative, it could be challenged.

6. The Epistemology of Communist China under the Hua-Teng leadership system

In approaching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hat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Preparation against the war, preparation against poverty, and for the the people" must be regarded in relation to the reality which they are facing. Otherwise the fallacy that Mao was always a radical-leftist cannot be eliminated, and the hasty conclusion that Communist China would follow the Soviet-type of Nation-building is unavoidable.

7. Conclusion

The combining ability of pragmatic behaviors and ideological public pledges, which prof. lucian Pye pointed out, is identical with the coincidence of the fundamental philosophy and reality. Conclusively, the fundamentals of the epistemology of Communist China could boil down to, as prof. Hiramatsu Sigeo pointed, that the Mao's idea (of the military) are created under the socio-economical conditions and climatic

circumstances. The above-mentioned references of prof. L. Pye and Hiramatsu Sigeo prove the coincidence of the Revolution-intended factor (R-factor) and the Pragmatic policy factor (P-factor).

The epistemology of Communist china would be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political system in practice under the Hua-Teng leadership which is important in the coincidence of "Four Modernizations", which seems short-term references, and Mao's fundamental governing philosophy based on the Mass-line which seems long-term ideological public pledge.

Here, according to the resolving the problem of estimating the period of the achievement of the 4-modernizations which is short-term reference factor (Leaders of Communist China estimates it's period as the end of this century), and moreover,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ao's Line as the programme of practical morale in reality, the nuance of 'three-division and seven-division' could be described.

In this point of view, the proper moments of China-type of Socialist Revolution (放) and Socialism-building (收) shows up-and-down movement in 'cycle-phenomenon', but its characteristics will be continuously remained.

So, the proper character of China-type Nation-building program, deeply different from the Soviet-type, of spontaneous coincidence of Mass-Line which tries to make asiatic HOMO FABRICOS comes into the light.

